

제428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5일(월)

장 소 국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4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국방부 소관
 - 병무청 소관
 - 방위사업청 소관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현안보고

상정된 안건

- | | |
|-------------------------------|---|
| 1. 2024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2 |
| 가. 국방부 소관 | |
| 나. 병무청 소관 | |
| 다. 방위사업청 소관 | |
| 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
| 2. 현안보고 | 2 |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안건은 2024회 계연도 결산과 국방부의 현안보고입니다.
결산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현안보고를 듣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대해서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해 오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승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반갑습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국방위원회에 오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오늘 밤 국가안보 이슈가 주로 다뤄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불법계엄으로 얼룩진 우리 군의 사기와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또 인구 감소와 안보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국방개혁도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대가 모두 복무한 병역 명문가 가문입니다.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방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안녕하세요? 유용원입니다.

국방위에 있다가 사정에 의해서 외통위로 갔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6개월간 몸은 외통위에 있었지만 마음은 국방위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받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가. 국방부 소관
- 나. 병무청 소관
- 다. 방위사업청 소관
- 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 현안보고

(14시08분)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등 4개 소관 기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현안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이번 UFS 연습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한층 더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방 위원 여러분!

우리 군은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함으로써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이승(不戰而勝)의 군대를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성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고 2024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국방부 세출예산 현액은 44조 547억 원이며 42조 5048억 원을 집행하고 7787억 원을 이월, 7711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462억 원을 정수결정하였고 이 중 403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2조 7286억 원이며 이 중 41조 4575억 원을 집행하였고 6709억 원은 이월, 6002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6709억 원은 대부분 시설공사 및 장비계약의 지연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6002억 원은 초급간부 획득 저조에 따른 군인 인건비와 시설공사 및 장비도입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654억 원이고 이 중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에 4765억 원을 지출하였고 356억 원은 이월, 1533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607억 원이며 이 중 군사시설 이전 등에 5708억 원을 지출하였고 723억 원은 이월, 176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군인연금기금은 4조 3639억 원을 조성하였고 연금지급금 등으로 4조 3452억 원을 지출하였고 187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9659억 원을 조성하였고 복지시설 운영 및 전세자금 지원 등에 6076억 원을 지출하였고 3562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소영 병무청장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2024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및 현역병 충원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서 이루어진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3600만 원 중 정수결정액은 5억 5100만 원으로 이 중 4억 4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7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억 700만 원은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체납 과태료 및 징계부과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18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94.9%인 3908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9억 81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병역의무자 지원과 인건비 사업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끌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자산은 전년 대비 30억 8400만 원 증가한 3802억 9800만 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1226억 2900만 원 증가한 1763억 23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님 나오셔서 방위사업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위사업청에 주시는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한 해 안보를 기반으로 한 신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첨단 전력 확보, 방산 육성과 방산 수출 지원강화를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과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고 무기 획득체계 혁신 및 범정부적 방산 수출 지원을 통해 국가안보와 방산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454억 원이며 1조 1687억 원을 정수결정하여 이 중 5450억 원을 수납하였고 6237억 원은 미수납 상태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FMS 운용수익금과 계약정산액이며 주요 미수납 내역은 지체상금과 물품대금 반환금입니다. 이는 소송 등 절차로 인해 징수가 지연되어 미수납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7조 9167억 원입니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방산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과 방위력 개선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17조 1400억 원을 지출하여 95.7%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2962억 원이며 4805억 원은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말 기준 자산은 전년 대비 2조 6600억 원 증가한 31조 6407억 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4794억 원 증가한 500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4년도 6월 26일부로 활동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결산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께서 이번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신 것에 한해서 소위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송수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이·전용 규모에 관한 사안입니다.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이용·전용액은 52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8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없었지만 연도 중 변경을 가한 예산입니다.

이·전용 규모 확대의 원인은 법원의 판결로 인한 배상금 지급 증가가 예상되었고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공공요금 집행액 증가가 예상됨에도 국방부가 해당 예산을 과소 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국방부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불일치를 축소하기 위하여 예산 소요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쪽부터 4쪽은 생략하고 자료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간부확보장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군장교, 학사장교 등의 간부 인력 획득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간부확보장려사업 중 단기복무장려금 내역사업 예산액은 487억 원이었으나 집행액은 329억 원으로 집행률이 67% 수준으로 부진하였습니다.

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은 초급간부 인력 확충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대학교 졸업생 중 학사장교 지원자에 대한 예산 60억 원을 편성하였지만 근거 법률의 미비로 해당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졸업생을 대상으로 편성된 단기복무장려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 8쪽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환경조사 및 치유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585억 중 집행률이 46.2%로 추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집행률을 비교해 보면 2024년도에는 정밀조사 및 문화유산조사 등의 절차가 지연되어 과거 연도 대비 집행률이 하락하였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기지별 정화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이어서 방위사업청 소관입니다.

먼저 425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한 핵과 미사일의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전략표적 감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군정찰위성을 총 1.3조 원을 투입하여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22년 개발 완료된 출처영상융합체계와 군 정찰위성 간 상호 연동이 어렵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확인함에 따라 당초 예산에 없던 연동기능 추가 개발비용으로 36억 원을 다른 사업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방사청은 우리 군 최초로 전천우·고해상도 군 정찰위성 확보를 통해서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군 정찰위성이 적시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쪽에서 12쪽 생략하고 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공격헬기 2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육군 기동사단의 공격속도 보장과 공중화력 지원을 위한 대형 공격헬기를 총 3.7조 원을 투입하여 추가 획득하는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요 결정 및 사업계획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총 사업비가 증가한 점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대형 공격헬기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요 재검토 등 동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덕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병무청 및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덕교 전문위원입니다.

병무청 및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병무청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기본교육과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식·소양을 함양하고 성실 복무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위하여 약 260여 명 내외의 외부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각 과목별로 강사의 전공 분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강사를 선정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교육 과정을 외부강사 인력풀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식만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의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와 교육 과정의 장기적·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전임교수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원격강좌 수강료·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대학을 휴학한 요원이 대학에서 운영하는 원격강좌를 수강하면 수강료 및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그 지원율이 5.9%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으로는 사업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많은 사회복무요원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사업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4년 6월 26일 그 활동이 최종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중한 국방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핀다는 결산심사의 본래의 의미를 유념하셔서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도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기존의 예산집행 실태를 성찰하는 한편 집행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견의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현안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 여러분!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 현안은 국방개혁 추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한미 국방협력 강화, K-방산 수출 및 협력 확대,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복지 개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윤봉희 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윤봉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윤봉희 정책실장직무대리 윤봉희 소장입니다.

현안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방개혁 추진부터 군인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 순입니다.

1쪽입니다.

국방개혁 추진입니다.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국방개혁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재건을 통해 첨단 강군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운영해서 군 구조, 국방운영체계, 병영문화 등 최적의 개혁안을 마련하고 내년 전반기 내에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AI 기반의 첨단 방위역량 확보를 위해 국방 빅데이터 확보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첨단기술을 적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 등 미래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해 계엄 관련 특검수사와 함께 필요한 내부 조치를 시행하면서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개편하며 헌법 수호를 위한 장병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입니다.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지난 6월 11일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였고 북한은 DMZ 일대 공사에 대해 유엔사 채널을 활용하여 2회 통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긴장 완화 조치로 지난 8월 초 대북확성기를 철거하였으며 이후 북한은 확성기 일부를 철거 및 재설치한 것을 식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되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대화 견인이 가능한 낮은 단계부터 실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 군사 당국 간 대화 채널 복원에 대비한 노력과 군사회담 재개에 대비한 준비도 병행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한미 국방협력 강화입니다.

한미 간 호혜적 관계에 기반해서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확립하고 군사·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수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맹 현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고위급 소통과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추진 동력을 유지하겠습니다.

연중 균형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해 동맹의 위기 관리 및 연합방위 능력을 향상시키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첨단 국방과학기술과 조선 MRO 협력 확대를 위해서 AI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 및 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조선업 분야에서 MRO 확대 및 합정 건조 협력이 가능하도록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K-방산 수출 및 협력 확대입니다.

권역별 맞춤형 방산 수출 전략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폴란드와 K-2 전차 2차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서 후속 체결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적극 지원하는 등 주요 사업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국내 주요 행사에 해외대표단 초청과 주요 방산협력국 대상 현지 방산포럼을 개최하고 연합훈련 계기 국산 무기체계를 홍보하는 등 수출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 사업 추진 시에는 유관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서 수출 협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군인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입니다.

군인들의 복무여건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서 임무에 전념하는 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당직근무비 인상 등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고 청년간부 미래준비 적금을 신설해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충견간부의 직업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군인자녀 학교도 지속 확대 개교할 예정이며 격오지 군인가족들에게 원하는 지역의 민간주택 임차를 지원하는 등 군인가족 지원정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복무 중 원격강좌 학점 취득 참여 대학과 군복무 경험학점 인정 참여대학을 지속 확대해서 학업 단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 및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 정청래입니다.

장관님, 장관 일 하실 만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다소 의정활동보다 더 업무량이 상당히 폭증한 것 같습니다.

○정청래 위원 국방위원, 국회의원 할 때와 장관 할 때 뭐가 좀 다르던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회의원 할 때는 여러 가지 방향 제시, 질책, 질의성이 많았지만 장관은 여러 가지 결심과 책임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위원 실제로 집행을 해야 되는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런데 군통수권자와 내란수괴가 겹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가 군통수권자를 동시에 한 적이 있지요? 그게 겹치는 기간이 있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좀 다소 기간이 있었습니다.

○정청래 위원 모순 중의 모순이지요.

헌법 69조에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이렇게 취임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 군통수권자가 헌법을 위반했다 하여 그리고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8 대 0 전원일치로 파면되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정청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그래서, 보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정청래 위원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가를 보위해야 될 국방부 고위 간부들이 주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직접 연루된 국방부 군인들에 고위간부들이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에 부화수행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이것에 대한 감찰계획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내란과 관련돼서……

○정청래 위원 그것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에는 지금 내란 부화수행 그리고 적극성을 띠고 부화수행한 자들을 감찰해서 숙아 내는 그래서 군을 건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나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와 균형을 맞춰서 실제로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도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같은 경우 내란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정청래 위원 그리고 분명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 함으로써 내란을 막는 중요한 역할 저는 했다고 보고.

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소극적으로 임무를 한 군인과 시민들 덕분에 내란을 막을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 공식 판결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소극적으로 임무를 했다는 것은 실제로 저항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성현 대령을 비롯한 이렇게 내란을 막는 데 힘써 일한 군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옥석을 구분하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부화수행하거나 내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될 것이 국방부장관의 특수한 임무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정청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청래 위원** 조금 이따가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중의 하나로 저는 국방부에는 왜 차관이 1명인가, 2차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국방부 업무가 크게 군령으로 보면, 군정과 군령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정청래 위원** 그런데 무인기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군령 체계를 어지럽힌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역 장교의 놀라운 중언도 있고 또 외환유치죄에 대한 짙은 혐의도 있고. 그래서 군령을 바로 세워야 되는 그것도 국방부장관의 임무라면 군정과 군령을 좀 나누어서 제2차관 제도를 도입해서 군의 사기도 진작하고 또 적극 가담자를 색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방부의 위상을 높이는 그러한 일에도 적절하다. 그래서 제2차관 제도를 도입할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군의 기강이 해이됐던 몇 가지 사례를 여러 가지 지적을 하자면요 우크라이나 군수품 지원 내역을 실제로 모르거나 감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요 비살상용 의약품, 의류 등을 주로 지원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군수지원을 지원했는데 이것도 거의 무상 대여가 아니라 무상 양도를 해 가지고 지원한 것이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역도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상계엄 사태 전에 무인기,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무인기를 10월에 띄웠는데요. 띄우려면 5~6월에 이것이 준비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상계엄을 5~6월에 이미 실행한 것이 아닌가, 작전을 세워서. 그런 생각이 들고.

병무청장님, 왜 상관도 없는 병무청 대전청사에 지하벙커를 세웠습니까? 벙커를 왜 만들었어요?

○**병무청장 홍소영** 벙커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정청래 위원** 이게 완공이 2024년 11월 4일에서 11월 30일이거든요. 비상계엄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것 분산 수용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저도 그 대상이었어요, 수거 대상이었으니까.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십시오.

위원님들, 가능하면 시간 내에, 보충질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노상원 수첩 등에 의하면 체포 리스트에도, 저도 상위권에 랭크돼 있고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 수거 대상이고 분산 배치되거나 백령도 물고기밥이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병무청에서 왜 지하벙커가 필요했습니까? 그래서 어제 어떤 언론에서 이게 비

상계엄 분산 수용용 시설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해명할 수 있어요?

○**병무청장 홍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조금 이따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들 제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

한번 해명해 보세요.

○**병무청장 홍소영** 위원님, 저희 종합상황실은 없던 것을 새로 지하에 설치한 게 아니고 기존에 운영되던 일반회의실과 같이 쓰던 종합상황실을 지하로 이전 설치한 것입니다.

○**정청래 위원** 의심받는 일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제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지금 말씀하십시오, 청장님.

○**병무청장 홍소영** 행안부의 중앙행정기관 비상대피시설 구축 계획에 따라 24년 1월에 계획이 세워졌고 상황실에 대한 점검은 23년 8월에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축계획에 따라 관련 기관과 예산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상황실을 새로 구축한 게 아니고 기존 9층에 있던 일반 회의실과 종합상황실을 같이 사용했었는데 그것을 지하로 이전 설치한 상황입니다.

다만 설치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시급성이라든가 사업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는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정청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리십시오.

○**강대식 위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민간인 출신 장관이 처음으로 출석하는 우리 국방위원회입니다. 첫 회의인 만큼 저는 신임 장관님께서 좀 상세하고 세밀한 현안에 대해서 보고가 있을 줄 알았는데 현안보고 자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간략하다든지 너무 허술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북한이 러우전쟁에 파병을 하고 또 병참기지 역할을 계속하고 있고 그 반대급부로 첨단 군사시설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전략무기들을 지원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IAEA에서 따르면 영변에 새 우라늄 농축시설이 완공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의 CSIS에서는 중국경 인근에 ICBM을 배치한 북한의 여단급 미사일 기지가 처음으로 확인된 그런 상황도 있었고 대남 확성기 철거가 아닌 또 추가로 설치됐다는 보고가 있었고 MDL 인근에서 북한군이 진행 중인 공사에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한 사건도 있었고 또 미사일의 경우에는 고체추진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서 다종의 SRBM급 전술유도탄과 초대형 방사포는 개발이 완료되었고 일부는 양산 및 실전 배치되었다라고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지난 주말 23일에는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사격도 강행했습니다.

이런 우리 안보의 가장 중요한 국방현안과 이런 데 대해서 북한 정세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모두 삭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월 2일 날에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고 이러니까 그때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국방위에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 밖으로 나가는 데 좀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비밀사항이 있다면 국방부 내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국방위원에게만 좀 상세히 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마지막 부분을 마이크를 안 드렸기 때문에 다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의.....

○국방부장관 안규백 앞에는 제가 들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성일종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늘 북한은 이런 틈을 타 가지고 도발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협상을 다 종합해서 국방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대식 간사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하시고 또 장관님께서도 틈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보고할 것 있으시면 해 주시고 만약에 비공개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시면 요청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강대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2024 결산에 대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기존 대비해서 나름 성실하게 준비했다고 판단합니다. 결산보고 때는 이 정도 이상 수준의 어떤 자료 준비가 있었던 적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기회 될 때 바로, 며칠 있으면 또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그 때 비공개로 더 상세하게 또 대면보고까지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대면보고 및 여러 가지 보고에 대해서 제한사항이 많고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도 상당히 엄격했는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역구 활동 또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가감 없이 국방부 차원에서 서비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도 이 이상은 한 적이 없다고 기억됩니다.

○위원장 성일종 협안이 있으니까 꼭 하실 것은 결산에 한정하지 마시고 협안도 말씀해 주시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늦게나마 국방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한미연합훈련 조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청문회 당시 때 우리 장관님께서 제 질문에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 할 필요성이 얘기 했었을 때 장관께서도 필요성에 대한 동의는 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오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상적으로 시행하지 못할 것으

로 예상이 돼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 정부에서 오비이락이라 할까 김여정의 어떤 한마디에 한미연합연습과 함께 시행될 한미연합훈련 절반을 조정하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장관님께서도 생각하실 때 사실 우리 국군통수권자는 우리 대통령이 아닙니까? 김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래서 정부가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한미연합연습이나 훈련을 조정했더라면, 먼저 그렇게 조정을 했더라면 모양새가 참 좋았었을 텐데 북한의 강압에 의해서 마지못해 조정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인다면 다시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화가 나고 좀 개탄스럽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대식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이런 상황이 연출된 데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나는 국방부에서 해명이 또 너무 궁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서 훈련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부 훈련을 조정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절정의 폭염 속에서도 우리 군은 정상적으로 연합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방부의 이 해명은 정말로 너무 궁색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좀 웃기는 것은 김정은·김여정은 우리 한미연합훈련 일부 조정에 대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예 한미연합연습과 연합훈련을 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현 정부의 기조와 북한의 반발을 보았을 때 혹 내년 3월 예정된 한미연합연습은 정상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대식 위원 정상적으로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조정 안 하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대식 위원 다행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질문 내용을 더 하고 마지막에 할까요?

○강대식 위원 예, 시간이 조금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조금 이따 대답해 주시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대식 위원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북한은 우리를 적대적 국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장관님도 아시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리고 또 장관님 후보자 시절에 제가 묻는 질의에 북한군을 우리 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여정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지 않나 이

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론이 없습니다.

○강대식 위원 또 김여정이 미국에 대해서는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을 버리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혹 이 말 중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연상을 한다면 현재 북한의 핵 수준이 2018년이라든지 2019년이라든지 이와는 차원이 엄청 다르다 하는 것을 내포한 발언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장관께서 충분히 대답을 해 주시고요.

적군인 북한은 지금 러우전쟁을 통해서 전쟁 실전 경험도 하고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첨단 군사장비라든지 기술을 이전받아서 현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장관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후보자 시절 때 장관께서도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할 의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대식 위원 장관님,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있었지요. 한반도 주변의 국제질서가 지금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 장관님, 저는 이럴 때일수록 동맹과 함께하는 이런 실전 같은 연습 훈련이야말로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 대한민국을 생존시키는 필수요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에도 장관께서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물론입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강 위원님께서 워낙 폭넓게 아시고 많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먼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목적은 우리 한반도에서의 안전과 평화를 확인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도 지휘소훈련(GPX)과 실기동훈련(FTX)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지휘소훈련은 물론이거니와 실기동훈련도 미국에서 중원되는 야외 훈련은 다 했고 기존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소규모 부대훈련 이런 것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폭염과 폭우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44개 중에서 22개는 했고 22개 훈련만 9월 달에 실시하기로 이렇게 한미가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훈련을 마친 상태고 이게 일부 연기지 완전 연기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미 측에서 중원되는 훈련을 다 했고 주한미군의, 우리 한반도 내 캠프 험프리에 있는 이 인원들과 우리 군이 함께하는 소규모 훈련만 일부 연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여정과의 어떤 이런 것이 없었냐라는 그런 말씀인데 김여정과의 그런 것은 글자 그대로 오비이락이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5월 15일 이후에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발사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간에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발사한 적이 최근에는 드물게

없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제가 주한미군사령관과 만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특정 기간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주둔자에 한해서는 연중 훈련을 균질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CP 탱고도 갔다 왔는데 한미 양국 병사들도 굉장히 만족해했다 이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김병주 위원 답변하는 것 보니까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을 아주 잘하셨네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감사합니다.

○김병주 위원 7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관련된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침을 주셨는데 경기북부 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국방부에 지시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국방부에 지시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국방부는 여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이게 너무 헐값이 랄지 또 너무 장기 저리랄지 이를테면 임대료 사용기간을 50년 100년이랄지 이런 조건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국방부 정책실·시설국과 함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김병주 위원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지금 장관님은 되게 소극적으로 국방부 측 의견을 얘기하시는군요, 물론 그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이것은 전향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만 국민과 군이 원원하는데,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특히 경기도 지역에 공여지가 많은데 경기도 반환공여지 보면 총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경기도 내 반환공여구역이 총 34개소고요.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21개 시군, 164개 읍면동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김병주 위원 다음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지금 개발이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 현황을 보면 반환된 18개소 중에 1개소만 완료가 되고 17개소는 추진 중인데 사실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추진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사실 이 반환 지역에 보면 기지가 오염된 기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 소유권에 관련돼서 오염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하고 연관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김병주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원칙이 사실은 매각이잖아요. 군의 공유지라든가 이런 것은 매각을 원칙으로……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김병주 위원** 그래서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실 미군기지가 있었던 주변 지역의 지자체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좋은 묘안을 냈어요.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답에 집중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동안 이 문제는 국방부도 그렇고 실제 문제에만 집중했어요.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이것은 한미 협의가 안 돼서 안 됩니다, 오염 처리가 안 되어서,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개발도 안 되고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후보 시절도 그렇고 대표 시절에도 묘안을 내셨어요. 이것 다 국가 땅 아니냐. 그러면 장기임대를 지자체에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묘안도 내시고 저도 거기에 토의해 봤을 때 그것 좋은 수다. 한 50년 정도 임대를 지자체에 해 주면 지자체는 개발을 하고 또 임대할 때 실제 임대료를 주기적으로 저렴하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향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법이 있지만 저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실제 주한미군기지 주변에 있었던 주민들, 특별한 희생이 된 분들입니다. 거기에 국방부는 전향적으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만이 아니지요. 군 유휴지 문제도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지요.

이것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2020년 7월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지역의 군 유휴지 면적이 757만 평입니다. 공시지가로 보면 1조 894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 63% 매각 예정이고요. 한 10% 정도는 두 번째 교환으로 돼 있고 그다음 한 7.1%인 180만m², 54만 평은 기재부에 인계하게 돼 있는데 이 중에 매각이 문제예요.

사실 부대가 있던 지역은 다 접경지역, 지자체가 아주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휴지가 보면 폐가처럼 되어 있고 폐지가 되어, 완전히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묘안을 냈듯이 전향적으로 저도 군 유휴지도 사실 1조 조금 넘기 때문에 한 50년 장기 임대를 지자체에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 주변도 개발이 되고 또 지역도 살고 군도 살고 상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군도 우리 군에 관련된 땅이 훈련 여건 보장 등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한 요소들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군 땅을 일방적으로 많이 매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입자가 적정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 군에 재정적 도움이 기여가 된다면 모르지만……

○**김병주 위원** 그래서요, 잠깐, 제가 시간이 제한되니까 제 의견을 듣고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김병주 위원** 그래서 저도 군에 있을 때는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각을 해서 거기 대금으로 부대 이전비용으로 쓴다든가 해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자자체에 한해서는 개발을 필요로 하면 장기 한 50년 정도, 필요하면 100년 임대를 해 주고, 같은 국가 땅이니까. 그리고 거기의 이전비용 같은 게 군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1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할 테니까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 마무리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추가 좀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빨리 우선 주질의는 좀 끝나는 게 좋거든요. 제가 5분 할 때 여유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은 당대표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하여튼 위원장님은 저한테 항상 야박하시니까.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주 위원** 하여튼 장관님, 전향적인 자세가 국방부에 필요한 것 같아요. 장관님 의견 좀 주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김병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우리 군도 여러 가지 지금 중간간부 이탈 문제, 여러 가지 재정적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좀 고려해 주시고.

사실 50년, 100년이라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저 무료로 달라 이런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자체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 나가고 여야 위원님께서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호응을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무료가 아니면 저리 임대료를 좀 받으면 돼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군의 복지라든가 군의 이전비용으로 쓰면 되고, 실제 부대 이전에 필요한 많은 돈은 국방 예산으로 태우면 되는 거거든요. 군이 땅을 매각해서 얻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요, 기본……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그만하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기본 원칙이, 그걸 매각해서 다른 부대 이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 거지요, 원칙 따지지 말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법은 제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바꾸는 것이지 제가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질의를 다 해야 혹시 방송을 받거나 모든 위원님들이 비교적 공평하십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래서 보충시간을 제가 좀 더 드릴 거고요. 주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운영하는 대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논산·계룡·금산의 황명선 위원입니다.

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황명선 위원 아까 정청래 위원께서 국방부 제2차관 필요하다,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달라,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국방부는 정부 속의 작은 정부입니다. 특히 군정과 군령을 갖고 있고, 교육부와 복지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 집행은 제일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따라서 제2차관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명선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저희 부서는 국장급 장군이 365명이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375명.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하지요.

○황명선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병무청장님, 정청래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하상황실 구축과 관련돼서 제가 몇 마디 더 드릴게요, 중복되는 이야기는 빼고.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경호처 차장이었던 김종철 병무청장이 5월 달에 취임했어요. 그 직후에 기재부와의 협의가 바로 진행됐는데 하루 만에 승인이 났어요. 그리고 12·3 내란 3일 전에 완공되었어요.

이 지하상황실은 비상시에 정부 지시를 전파하는 국가지도통신망, 합동지휘통제체계까지 구축되어 있다라는 점을 볼 때 제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내란 계엄과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게 행안부의 공문을 받고 시작을 했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런데 이게 행안부가 직접 공문을 내렸지만 그 이전에 국정원에서 이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리고 2024년도 1월 11일 날 NSC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행안부 그리고 중앙정부의 각 기관으로 전파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했어요. 병무청만 유독 했어요. 대통령경호처 차장이었던 김종철 병무청장이 있는 병무청만 이걸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국민들이 이것 납득하겠습니까?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두 번째, 방위사업청과 관련돼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여야 국방위원님들한테 다 오셔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KDDX와 관련된 의견들을 주

고 가셨어요. 이 사업은 7조 8000억짜리 사업이고 2020년도부터 2036년도까지 6척의 순차적 건조를 통한 굉장히 큰, 8조에 가까운 사업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묵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굉장히 이재명 정부, 과거부터 시작해 왔던 사업들을 잘못 판단을 하면 굉장히 큰 국가적 신뢰가 하락되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방사청에서 오셔 가지고 주시는 의견 자체가 실질적으로 과거 관례, 효율을 따지자라면 설계를 한 업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관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설명드린 것이 군이 원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한 함정에 대해서 실제 상세설계와 선도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것이 가장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저희가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판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이번 규모는 굉장히 많은 국민적 상식에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반드시 아주 숙고하고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거예요.

제가 이 내용과 관련돼서 방사청의 규정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경쟁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산업체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 복수로 지정된 것이지요. 맞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2개 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황명선 위원 과거에 기존에는 단수 업체니까 설계하면 효율성 뭐 해서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경우에는 방사청과 산업부의 협의를 통해서 지난 2월에 현대중공업·한화오션, 이 2개의 방산업체가 지정이 되었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황명선 위원 이 두 업체 모두 KDDX를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지요, 2개 업체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유감스럽게도 현대중공업이 기밀유출 건이 발생한 것이 있어요. 해당 행위의 회사 개입 정도나 회사의 기밀 활용 정도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위사업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지요. 저는 이런 두 가지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될 내용인데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을 보면 국익 차원에서 사업 방식에 대한 변경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기술 진보화도 저는 고려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술 진보화.

결국은 KDDX 사업의 투명한 추진을 담보함은 물론이고 진정한 해군력의 강화를 가져오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경쟁입찰을 통한 방법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방사청과 국방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알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다음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방 AI와 관련돼서 거버넌스 발전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특히 국방부·방사청 거버넌스가, 여기 방산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현재 당장 AI 활용의 기반이 되는 국방데이터 확보나 관리가 지금 현재 제가 살펴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중국·이스라엘은 AI를 벌써 전쟁에 활용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군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성일종 예, 마무리 빨리 하시지요.

○황명선 위원 그래서……

○위원장 성일종 마이크 안 들어갑니다. 그냥 마무리하십시오.

○황명선 위원 마이크를 주셔야 마무리를 하지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 모든 위원님들이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래서……

정말 너무 하시네.

○위원장 성일종 아니, 왜냐하면 오후에 하는 거라서 주질의는 그렇게 합니다.

○황명선 위원 그래서 국방부와 방사청과 그리고 방산기업과 함께 AI 거버넌스 체제를 지금 잘 만들어야 되겠다. 특히 국방정책을 결정하는 국방부 또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방사청 그리고 전력 수요를 창출하는 우리 군, 첨단기술을 보유한 업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체계적인 국방 AI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국방부하고 방사청이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황명선 위원님 죄송하고요, 보충질의 시간은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길게 쓰시면 그래도 혹시 방송에 나갈지 모르시는 뒤에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지난번 청문회 시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 신상발언 1분만 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신상발언 하시는 겁니까?

○강선영 위원 방위병 제도에 대해서 오해가 된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면 이 시간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냥 시간 범위 내에서 해 주시지요.

○강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방위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안타깝게 지금 두 분이 다 이석하셨는데 정청래 위원님과 김병기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왜

꼭해서 이 용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약간 그 내용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장관님후보자의 방위병 복무에 관해서 발언을 했더니 아까 정청래 위원님께서 ‘내란동조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 운운하는 건 참을 수 없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께서 방위병이라는 용어가 차별받고 그래서 없애서 단기사병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저를 왜 모욕감을 주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장군 출신이 그것도 몰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날 속기록을 보시면 제가 방위병 출신이라고 장관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속기록에 있고요. 제 발언의 핵심은 당시에 후보님께서 복무개월 14개월인데 왜 8개월을 더 하셨느냐, 관련해서 병적기록을 제출해 달라 이런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PPT를 보시겠습니다.

방위병이라는 용어는 병역법에 근거해서 1962년부터 1994년까지 유지됐던 방위소집에 관한 병역제도의 한 복무 형태입니다. 공식 용어입니다. 장관님께서는 그 사이, 그러니까 62년부터 94년 사이에 복무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방위병이셨지요. 그리고 이 방위병이라는 용어는 국가기록물, 즉 농촌지역 방위병 충원대책, 국방사 육군 50년사 기록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장군이 그것도 모르느냐, 단기사병이라고 쓰라고 했던 그 단기사병이라는 것은 군인사법에 단기복무로 명시되어 있지, 비공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 제가 방위병…… 죄송합니다. 여기 유용원 위원님도 방위 출신이시고요, 제 동생도 방위인데 당시의 복무 형태이지 그것이 폄하돼서도 안 되고 그것은 본인이 뭐 어떻게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제가 그 당시에 방위병이었는데 방위병이라고 했더니 ‘단기사병이라고 써라’ 했는데, 아니, 그러면 김병기 위원님 계셨으면 좋겠는데 안기부 출신이었는데 지금 국정원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국정원 바뀌었는데 안기부 출신이라고 그러면 그것 폄하하는 용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위병이라는 용어 사용한 것은 모욕도 아니고 잘못된 용어도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장관후보자님의 경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한 논점을 흐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두 분 위원님 계셨으면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안 계시는데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이 잘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다른 질의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잠깐 병무청의 지하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5년 UFS 훈련이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정부 을지연습 그다음에 28일까지 한미연합 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은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 정부까지 포함해서 군과 같이 훈련하는 건데 이것은 정부 부처의 전시 대비 연습하고 실제 훈련을 지원해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장관님은 평상시에 군정과 군령을 수행하면서 더불어서 을지연습 기간에 NSC 위원으로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면서 국가행정기관의 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이번에 하셨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선영 위원** 이렇게 을지연습을 통해서 장관님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소관 분야 비상대비 업무를 집행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비상대비계획의 3대 기능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비상계획……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비상대비계획, 일명 충무계획, 을지연습을 시행하는 충무계획 3대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글쎄요, 그건…… 말씀해 보십시오.

○**강선영 위원** 가장 중요한 3대 기능은 군사작전 지원, 두 번째 비상시 정부 기능 유지, 세 번째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입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일명 비상대비계획 또는 충무계획이고 이에 관련해서 1종, 2종, 3종씩 발전하는 것을 충무사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PPT를 보시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시에 국방부장관님이 이렇게 충무사태별로 조치사항을 1종, 2종, 3종의 단계로, 3종부터 발행되겠지요, 이렇게 계획이 발전되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시행하고 나면 이제 군에서는 이것을 데프콘이라고 그래서 격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충무사태라고 그래서 각종 행정기관이 이것을 수행하게 되지요.

이것을 하고 나면 사후 검토를 합니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 즉 군사작전의 지원, 비상시 정부 기능 유지 그다음에 세번째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을 하는 정부가 그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때 병무청은 그러한 시설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 차원에서 아마 지하시설이 점검되고 확인됐을 겁니다. 물론 당시에 병무청장님이 얼마나 권한이 빠르셨는지 지적받고 바로 협조해서 바로 건물이 리모델링됐다. 특혜라면 특혜인 것 같지만 개인이 아니고 공공기관이었겠지요.

이번에 연합연습을 하면서 장관님께서 H아워 선포됐을 때 뭐 하셨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이번 일부 연습 때 을지연습 기간에는 국무회의와 국방전략회의, 19일 날에는 통상 업무 하셨는데 이번 일부 연습은 20일 날이 H아워가 선포된 날입니다. H아워 선포는 아까 말했던 충무 1종 사태, 군으로 볼 때는 데프콘 1이 선포된 날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NSC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날 일반적인 국방상황평가회의의 전시현안 토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휘소, 아까 말씀하신 탱고병기 방문하셨고요. 그다음 날, H아워 선포된 다음 날 VIP 주관 을지연습 종합상황보고에 참석하셨습니다.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역할을 수행하셨는데요. 장관님이 데리고 있는 참모들이라면 군정과 군령권을 행사하는 첫 번째 을지연습을 하는 장관님께서 이날 H아워가 선포가 되면 각 단계별로 어떠한 상황이 정말 군정과 군령권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몰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 두 가지, 하나는 정말 군정과 군령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당일 날 H아워 선포되고 전시가 되면 충무사태도 같이 지원해 주면서 데프콘 격상에 대한 임무도 수행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병무청도 거기에 대한 어떤 역할도 하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장관님도 그런 부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30초만.....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냥 하십시오.

○강선영 위원 그렇게 수행해야 되는 역할일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제 내일모레면 곧 끝나는데요. 28일입니까, 끝나는데 사후평가에 제가 참여해서 내년에는 더 완벽하게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일종 병무청장님!

○병무청장 홍소영 예.

○위원장 성일종 아마 병무청의 지하상황실을 정리한 것 때문에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저에게도 잠깐 오셔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것은 계엄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 또 언론보도를 지시하셨나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그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십시오. 기회 드리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위원장 성일종 있는 상태 그대로 보고하십시오.

○병무청장 홍소영 제가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병무청장이 이전의 일이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황명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 병무청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박선원 위원 잘못 보고받고 하지 마시고.

○황명선 위원 아까 제가 사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제대로 살펴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임종득 위원 청장님이 말씀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성일종 있는 대로만 이야기하세요.

위원님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임종득 위원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 왜곡되지 않겠어요?

○한기호 위원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청장님인데 뭘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겠어요. 그 것을 의심하면 민주당 위원님들이.....

○병무청장 홍소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청장님, 정확하게.....

○박선원 위원 선한 새로운 병무청장이 상황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먼저 말했으면 하는 거예요.

○위원장 성일종 그것 참…… 협조 좀 해 주세요.

○병무청장 홍소영 아까 황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관계상의 사건이 일어난 부분은 황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점검회의랑 보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1월에 중앙행정기관의 대피시설 구축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 청은 이전 설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지도통신망은, 아까 읊지연습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저희는 안보기관입니다. 그래서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지도통신망은 20년도 초에 이미 구축되어 있어서 일반상황실에 상황실과 회의실을 병행해서 지상 9층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지하 대피시설이 필요했었는데 행정안전부의 대피시설 구축계획에 따라서 지하로 이전 설치한 거고 예산 부분의 심의는 상반기 중에 기재부랑 행안부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서로 진행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는 24년도에 설치를 요구했고 24년도 불용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할 때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이나 사업 간의 유사성에 대해서 판단의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은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12·3 내란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있을지 모를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추진 경과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박선원 위원 2017년, 18년 이때 국가정보원에서는 댓글공작 사건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국정원 출신 분들과 외부 학자, 변호사들 포함을 해 가지고 민관 합동으로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만들고 댓글 사건에 대해서 있는 대로 다 들춰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조실장이 주관했고 기조실장이 주관한 그 위원회를 감찰실장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방부에서는 그 일을 해야 할 기조실장이 전 정권 사람이고 법무관리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관님께서는 댓글공작하고 내란 사태하고 어느 게 더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두 개 다 심각한데 아무래도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 가치를 어지럽힌 내란이 더 위중하다고 봐야 되지요.

○박선원 위원 그래서 특검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국방부는 특수 조직 아닙니까? 합참은 더욱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위해서 민군관 합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주심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제2차 영수회담이 있나 없나, 협

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논란 끝에 윤석열은 결정을 하였지요. 비상계엄으로 가자. 그래서 아까 강선영 위원이 말한 충무 3종, 2종, 1종 사태가 발생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대북 확성기를 다시 틀자 해서 6월 2일, 6월 4일부터 확성기를 다시 틀기로 하고 군사합의를 파기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7월 19일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고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전면 시행 방침을 밝혔지요.

그다음에 육군, 해병대, 작전본부, 미사일사령부가 동원돼서 NLL 포사격 등이 여덟 건이 발생합니다. 모두 5월 27일 이후 시작됩니다. 아까 정청래 대표가 말씀하셨다시피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가 임명돼서 무인기 작전을 계획한 것이 6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기간입니다. 엄청나게 작전을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지요. 외환 유치를 위해서 무인기와 아파치 헬기를 동원합니다. 무인기는 10월 3일, 10월 8일, 10월 10일, 10월 31일, 11월 5일, 11월 8일, 11월 13일, 11월 19일, 자그마치 여덟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10월 3일에 두 번, 11월 8일에 두 번 합치면 총 열 차례가 되었고요. 아파치는 7월 30일, 8월 23일, 11월 5일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을 하지 못해서 정말 난리를 피우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전체를 합쳐 보면 이렇게 됩니다. 5월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11월 17일 노상원, 문상호 등이 만나 가지고 정성욱 대령 만나서 정보사 차원에서 OB 협역 합쳐서 처음으로 계엄에 대해서 토론하고 11월 18일 중령과 소령을 몽골에 급파했습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모든 사태를 합참의장이 알았을 거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몰랐을 거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드론사령부도……

○박선원 위원 장관님께서 아까 결심, 결정, 집행, 책임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육군, 해병대, 작전본부, 미사일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그다음에 방첩사의 합동정보작전까지 다 합쳐서 그리고 무인기까지 다 합쳐서 11월 20일 이후에 원점 타격 계획 이런 게 다 빠져 있는 겁니다. 6월 달까지 해서 이십 차례입니다, 이것 자체가. 여섯 달 동안 이십 차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까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무 2종·3종 사태를 발령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한 것이지요. 이 전 과정에서, 이 무수한 작전 속에서 합참이 몰랐을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합참의장이 책임이 없습니까?

지금 새롭게 이재명 정부에서 국방 체계를 갖춰야 되고 대북 억제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비롯해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빨리 우리 군이 안정돼야 되고 새롭게 정말로, 아까 정책차장대리가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합참의장이 임무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장관님께서 조사하고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겠습니다. 작년 23년 10월 달에 드론사령부가 창설이 되고 2024년 5월 1일까지 이보형 전 드론사령관이 재직을 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시점부터 예의

주시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대신합니다.

○**박선원 위원** 장관님, 국제정치사에서 거창하게 예를 들 필요는 없을지 모릅니다만 류탸오후 사건으로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제국, 통킹만 사건으로 베트남전을 확전시킨 미국, 소련 국경에서 핀란드군의 포격을 핑계로 소련·핀란드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도발 과정에서 소련에 아프가니스탄 역시 적의 침공이 먼저다 그랬었고 심지어는 이번 우크라이나전도 우크라이나가 먼저 공격을 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강경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을 하려고 했던 이 비상계엄에 아직도 군에서 그리고 우리 국방부에서 조사단이 책임 있게 꾸려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유감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닙니다. 이미 특검과는 별도로 국방부 감찰과 조사본부에서 꾸려져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조사를 하고 나서 만약에 여러 가지 미진하다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군도 검토해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선원 위원**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합참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래야 우리 군이 정말 싸울 수 있는 군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박선원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군이 정상적인 훈련을 했다고 한다면 계엄과 묶는 거는……

○**박선원 위원** 위원장, 왜 질문할 때마다 껴 가지고 무슨! 위원장, 도대체 뭐하는 거야!

○**위원장 성일종** 또한 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위원장이 청소부예요, 뭐예요? 위원장, 청소부예요?

○**위원장 성일종**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박선원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위원장, 청소부시냐고! 왜 남 질문하면 꼭 그렇게 나와 가지고 물타기도 아니고 김 빼기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야, 지금! 우리 당 위원이 다 질문할 때마다 판판이 껴 가지고…… 사회만 하세요, 사회만!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사회자는 회의를 다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박선원 위원** 사회만 하세요. 왜 시간 갖겠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장관님, 김현태 면담해서 해외파병 무슨 약속했는지 성일종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조사하세요.

○**박선원 위원** 임종득도 조사하십시오.

○**임종득 위원** 점잖게 합시다, 우리.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장관님, 국방부가 최근 제작한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특별 정신교육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과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교육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이곳에서 열린, 국방위에서 계엄법에 대해서 조차 제대로 이해 못하는 일부 군 수뇌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법률이라든지 정신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자료를 살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이번 교안 내용 중에는 항명죄를 다루면서 대법원, 현재 판례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적법한 군사상 명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았던 사례들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시 출근 지시라든지 생활관 환기 지시라든지 경계 부대원들에게 한 음주 제한 지시 등이 모두 항명죄가 아니라는 판례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명은 아니지만 다른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있으면 오해가 없을 텐데, 덜 할 텐데 그런 설명 없이 그대로 교육을 한다면 초급 간부라든지 병사들은 이런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이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 대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병도 군 형법에 저촉을 받고 군에 수범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장병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서 항명죄와 달리 군기교육이랄지 군의 정신교육이랄지 이념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별도의 트랙에서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전문교육과, 법무장교의 교육과 또 일반 정훈장교 교육의 두 트랙으로 이원화시켜서 교육을 시킬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래서 지금 교안 자체가 성안된 것이 아니고 야전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 삽화도 이미 일부 들어가 있는데 삽화 내용이 좀 선정적이고 과격해서 그 삽화는 빼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일단 여론의 과정이 하나의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용원 위원** 다음 PPT 띄워 주세요.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수갑 찬 모습의 삽화는 사실 군인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이걸 삭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유용원 위원 그래서 그런 조치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군참모차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까?

○육군참모차장 고현석 예.

○유용원 위원 나오실 필요 없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지난 7월 17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육군은 장병들이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PPT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관련 문건을 입수해서 살펴보니까 그 어디에도 우리 정훈교육의 핵심 과제인 안보관, 대적관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육군참모차장 고현석 예, 저기는 제한된 지면으로 하다 보니까 내용이 아주 세부적으로 넣지 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지만 안보관, 대적관 교육은 정상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육군참모차장 고현석 예,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특별 정신교육 도입 자체를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런 교안은 정말 상당한 오해와 논란 그다음에 군 기강을 훌트릴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살펴서 대폭 수정·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군 기강을 세우려고 했는데 군 기강을 훌트려서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K-방산 수출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폴란드 가셔서 K-2 전차 2차 사업 계약식에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아마 느끼신 바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이재명 정부에서 K-방산 수출을 강조하고 계신 것 저도 적극 환영합니다. 그때 제시된 방안 중의 하나가 대통령실에 방산비서관을 신설하겠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는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사람을 여러 가지, 몇 명을 놔두고 식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방산비서관은 만드신다는 말씀……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 K-방산 수출에서 가장 큰 시장은 어디겠습니까? 미국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미국하고 유럽이지요.

○**유용원 위원** 유럽은 이미 폴란드라든지 지금 적극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미국시장을 진출하려면,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장벽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게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RDP-A인데요. 이게 사실은 전 정부에서도 계속 바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진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장관님, 저는 적극적으로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그것도 굉장히 급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상당히, 중동이 연말까지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고요. 중동도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중동을 가시면 좀 전천후로 영업 세일즈맨이 되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유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12·3 비상계엄 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의 수뇌부부터 해서 그때 작전에 동원됐었던 실무자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은 피의자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김명수 합참의장 등 관련 군 수뇌부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북의 오물풍선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이었는지 아니면 북한 도발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의 명분을 삼으려 했다는 의혹이 맞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인기 침투작전을 기획했고 작전의 총책임자, 즉 지휘체계는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장관님도 이에 동의하시지요?

이번에 저는 첫 번째 사안과 관련해서 평양 무인기 작전에 투입된 무인기의 성격에 좀 집중을 해 봤습니다. 장관님, 작전에 투입됐던 무인기가 무기체계입니까 아니면 전력지원체계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게 상태가 소규모이고 또 가격이 비싸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지원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선희 위원** 예, 방위사업법에서도 그 내용이 있고요. 현재 무기체계가 아닌 전력지원체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 평양 무인기 작전에 투입된 드론작전사령부의 소형 정찰드론을 무기로 보지 않고 명확하게 전력지원체계인 무기 외의 항공장비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드론사의 무기체계를 보면 사실은 정상적인 무기 획득 과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사실은 중요한데 예산도 방위력 개선비 예산이 아니고 사실은 전력운영비, 그중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예산으로 소요가 됐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사실상 교육훈련용 상용 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전력지원체계가 대북 군사작전에 일반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것인지요? 제가 이 부분도 국방부에 자료 요구를 했더니 답변은 해당 교육훈련용 상용 드론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암호모듈이 장착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주파수, 즉 통신 거리가 짧아서 먼 거리 비행에 불

과해서 대북 군사작전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암호 모듈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주파수가 짧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것이 드론사의 일반적으로 소요 제기나, 소요 검증이나 그리고 결정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봤더니 오직 윤석열의 소형무인기 대응책을 만들어 오라 이 한마디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김용대 사령관이 이야기를 했던, 사실은 군사작전 전개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투력이 없는 전력지원체계인 연구용 드론을 가지고 군 지휘부가 무슨 의도로 평양 침투를 통한 북한의 도발을 강행했던 것인지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책임자와 지휘체계와 관련된 것인데요. 여러 관계자가 있습니다마는 다 말씀드릴 생각은 없고 김명수 합참의장,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명수 합참의장에 관련된 것은 한 가지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전에 이 작전을 인지했는가의 여부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김 의장이 무인기 작전 보고를 받은 다음에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을 넣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무인기 작전 계획에 사실상 김명수 의장이 패싱당했다라고 하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 의장이 무인기 투입 작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진술 공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진실 공방이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관님, 합참의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50만 국군을 작전 지휘하고 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역 최고 지휘관이지요. 그런데 이런 합참의장에 대한 이러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 정부는 출범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진술 공방 내지는 진실 공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김명수 의장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승인했다라면 혐의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작전을 알고도 모른 척 했다라고 하면 방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합참의장이신데 사후 보고받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군령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으로서 무능함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군 수뇌부들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50만 국군 장병들은 어떻게 생각 할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군 수뇌부는 대체적으로 보면 사실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좀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관님, 그 UFS 훈련이 종료되면 장관님께서 대통령께 합참의장 조기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을 군 최고 지휘관으로 계속 두는 것은, 사실은 지금도 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군의 사기를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그리고 군 기강이 지금 지휘체계가 많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이 지휘체계, 군의 기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관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국민의 군대, 국민의 군대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그런 국민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는 것은 장관님께서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매우 강조하는 부분인데 최고 지휘관을 교체하지 않고 이 부분을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군 최고 지휘관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혹시, 장관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휘부에 대해서 또 현재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특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여건이 제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사가 아마 깊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 지휘부의 조속한 교체는 바로,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지도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백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합참의장과 관련돼서 박선원 위원과 백선희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무능하고 비겁한 자다, 합참의장은’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의 구속 사유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입니다.

합참의장, 국회에 와서 내란국조특위에서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국조특위에서 합참의장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12월 4일 3시 25분 특전사·수방사 지휘권 환원 요청, 전 장관 승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방사와 특전사의 작전지휘권을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합참에서 계엄과 관련 보고를 받고 들어가면서 경계태세 2급으로 격상했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임무라고 했습니다. 합참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휘통제실에서 작전지휘권이 있는 부대들, 특전사와 수방사, 아시겠지만 국군조직법과 이에 따른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수방사와 특전사는 작전부대로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합동부대로서는 드론사령부를 지휘합니다.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지휘권을 장관에게 혹은 계엄군에게 인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환원 요청을 하지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참의장은 경계태세 2급 발령할 때 똑같은 상황이면 당연히 전군에 대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기 때문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본인이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대들이 합참의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국회와 선관위와 이런 데를 난입했을 때는 복귀 명령을 내리는 게 합참의장의 역할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허위 공문서를 작

성해서 와서 국회에다 보고를 했어요. 이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한덕수와 이상민에 비해서 합참의장의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합참의장에 아직까지 앉혀 놓고 있느냐, 어떻게 국회에서 위증을 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한 사람을 50만 대군의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남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보직 해임해야 된다. 이게 드러나는 팩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장관님, 방사청에서 17조 원가량의 방위력개선비를 사용하잖아요, 1년에. 군인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국방부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다면서요, 장비에 대한 돌려막기가 아니라 군인에 대한 돌려막기. 제대자가, 전역 지원자가 너무 많습니다, 간부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부승찬 위원** 5년간 국방부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까 이미 25년 전반기에 지난해 전역자를 초과했어요. 지난해 한 해 동안 부사관이 1898명 전역을 했는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911명이 전역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훈련할 때 인근 중대에서 포수, 조종수를 빌려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차, 전차, 자주포의 가동률이 60%도 안 돼요. 무기 사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무기 사면 뭐를 합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가동률이 그렇게 떨어져요.

해군 구축함 부사관 보직률은 지난해 75.5%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부사관 선발률은 23년에 55.1%, 24년에 51%밖에 안 돼요. 허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게요……

○**부승찬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부승찬 위원** 그래서 제가 차관한테도 얘기했는데요. 징병제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공무원 봉급과 군인의 봉급을 맞추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다 20%, 30% 공무원보다 많아요.

여기에 공무원들 앉아 계시지요? 한 번 보직을 받으면 거기서 퇴직을 해요. 군인들은 산으로 들로 도시로 할 것 없이, 저도 14년 군복을 입었지만 여덟 번 이사했어요.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됩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군인에게 투자할 때예요. 진짜 전반적으로 봉급체계, 당직근무비 인상, 뭐 인상 이것 임시방편적인 것 가지고 뭘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복을 입고 있는 군이 아니라, 민주시민이 아니라 직업으로서 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징병제 포기해야 돼요. 모병제로 가세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게 필요하다. 이제는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오고 싶은 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생활의 안전이고 생활에 안정을 주는 거고요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행복지수를 높여 줘야 돼요.

그런데 군복 입은 분들은 너무 불쌍해요. 전부 기준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 기준이야.

이것 진짜 대대적으로, 10억 20억 100억을 들여서라도 연구용역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재부 있잖아요. 뭐 인상하는 데 안 올려 줬을 때 기재부를 한 달간 전방 투어시켜요, 거기서.

하여튼 사람에 투자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합참의장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고 앞으로 고려를 하겠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사관 충원율 문제는 하사만 충원율이 70%대고 나머지 중사, 상사는 거의 90% 후반, 구십칠팔%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이 곧 발표가 됩니다마는 미력하나마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신다면 내년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승찬 위원 합참의장에 대한……

○국방부장관 안규백 합참의장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곧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발표가 아니라 보직 해임이 맞다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국회에 보고한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을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국방부장관 안규백 여러 가지 조사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임종득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강대식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돼서 내년 3월에 할 거냐라고 할 때 장관님께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연중 균형되게 실시하는 방안을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미연합 연습 1년에 두 번 하는 것은……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상반기·하반기.

○임종득 위원 첫 번째는 주한미군의 교대 주기에 맞춰 가지고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법정부 차원에서 같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중 균형된 훈련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기준대로 두 번의 훈련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려고 그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전반기·하반기, 3월·8월 달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8월 달 훈련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반기는 항상 하고요.

○임종득 위원 두 번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린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장관님, 이재명 정부 지금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과 많이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유사할 수가 없지요.

○임종득 위원 그래요?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테자비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화면에 보시면 취임 이후에 6월 11일 날 대북방송 중단하지요. 그리고 8월 4일 날 대북확성기 철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8월 15일 날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띠워 주시지요.

문재인 정부 때의 모습입니다, 18년 4월 24일 대북방송 중단, 5월 1일 확성기 철거, 8월 15일 평양 정상회담 공개, 9월 19일 9·19 군사합의.

물론 문재인 정부는 1년 정도 고민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절차가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일단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는 신뢰 관계부터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간에 낮은 단계부터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9·19 군사합의가 저는 전형적인 위장 평화쇼였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임종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9·19 군사합의는 최초의 남북 간 군사적 합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역사적 평가가,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을 한번 보시지요.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국회 외통위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글쎄, 통일부장관의 마음속을 제가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문재인 정부 9·19 군사합의 당시에 통일부장관이 조명균 장관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통일부장관은 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정동영 장관이 마치 안보부총리인 것처럼, 왕 장관인 것처럼 훈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9·19 군사합의 복원이 통일부 소관입니까, 국방부 소관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9·19 군사는 주로 국방부 소관이 많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통일부하고 전혀 별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래도 국방부에서 판단을 하고 조치를 하면서 협의해 나가야 될 단계가 아니에요? 통일부에서 세부적인 것을 모르잖아요, 군사 사안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안규백**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 위원님하고 다른 생각의 말씀을 할 수가 있지요.

○**임종득 위원** 다음 슬라이드 올려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제적·단계적이라는 의미가 뭐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19 군사합의 복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낮은 단계부터 가능한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어 가서 군사적 합의에 도출하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이해되는 것은 이것은 북한의 비례성 있는 행동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보여요, 지금 나타나는 일련의 행동으로 봤을 때. 이 발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글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선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복합적·구조적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입장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국방위원회를 하셨으니까 9·19 군사합의가 맺어지고 나서 얼마나 많은 북한의 도발이 있었는지, 합의에 대한 위반이 있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크고 작은 위반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크고 작은 것 다 합치면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3600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정도, 포신 덮고 그게 무슨……

○**임종득 위원** 해안포 문 개방하는 문제까지를…… 큰 것만 하더라도 수십 건이 넘어요. 그런데 북한이 주적이라고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도 북한의 선의를 믿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선의를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하기보다는 우리는 북한을 항상 두 가지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 장 한번 넘겨 주시지요.

슬라이드 올려 주세요.

대북 확성기 철거 논란 잘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11일 날 방송 중단, 8월 4일 날 확성기 철거, 8월 9일부터 문제가 돼요. 국방부가 ‘일부 지역에서 확성기 철거하는 북한의 활동이 식별됐다’……

몇 개 철거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8월 9일 오전에 2개 철거하고 오후 19시에 다시 1개를 재설치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그런데 통일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북한이 신속하게 철거에 나선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하고 8월 12일 대통령은 확성기 상호 처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은 북한의 움직임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면서 선전하고 있는 거고 북한의 동조를 기대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침소봉대가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8월 9일 오전에 두 세트를 철거했고 그 이후에 하나를 다시 재설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그걸 침소봉대…… 왜냐하면 20개 했으면 침소봉대인데 2개를 철거했다고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종득 위원 그러면 다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왜 발표를 안 합니까? 오늘 보고 내용에도 그 내용은 안 담았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판단했을 때 전 정부의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보고 그걸 참조해서 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지금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 담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를 일반적인 분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걸 일일이 다, 북한에서 MDL에 대해서……

○임종득 위원 그러면 하나 철수한 것은 대통령실까지 이야기해 가지고, 보고해 가지고 언론에 넣고 변화를 이야기하다가 2개 설치한 것은 전혀 다른 거고 프로토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닙니다. 지난 5년 과정을 제가 죽 지켜봤더니 북한에서 MDL 침범하고 기관총, 총기 발사한 것도 보면 총 6번인가 5번인가 했었는데 그것도 2번 발표를 했더라고요. 장군 출신인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MDL선상에서 일어난 일을 거의 리얼타임으로 생중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처리하도록 하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방위원장과 국방위 위원들에게 직접 보고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오해를 안 받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저도 국방위에서 처음 발언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수해 복구를 위해서 우리 군이 큰 역할을 올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남원 출신 채 해병이 2년 전 7월에 무리한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해서 순직했고 그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해서 책임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법과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 안장식에도 갔었는데 정말 슬펐습니다. 그날 비도 많이 내렸는데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비석을 잡고 우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장관님,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의 수사 대상 중에는 아직도 국방부와 군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청구서에 ‘윤석열 격노는 망상’이라는 문구를 넣은 염보현 사령은 국방부검찰단 군검사이고 윤석열이 격노했다는 사실을 이종섭·김계환에게 알리며 수사외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임기훈 중장은 현재 국방대학교 총장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육군 56사단장, 해병대 1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 등 수사외압에 관련된 여러 인사가 국방부와 군 내부에 남아 있습니다.

장관님, 현재 국방부나 군 내부에 수사외압과 관련된 인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지금 기소가 12명이고 수사 중이 19명 그래서 31명 정도 됩니다.

○박희승 위원 이들이 군 기강을 훌트리지 않고 특검수사에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아울러 또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특검의 요청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직무배제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이 사건 이후로 대민 안전매뉴얼이 일부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좀 더 근본적인 군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고 당시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지금까지도 자신은 형사적으로 책임질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명분은 해병대 1사단의 평시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동의합니다.

○박희승 위원 장관님, 현재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독립시켜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박희승 위원 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을 해병대로 넘기는 안이 확정되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

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준 4군 체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군 문제 개편과 같이, 동시에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4군의 체제에 준해서 예우를 한다 이런 얘기지 독립군으로서 4군은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2작사에 있는 해병 1사단의 작전권은 해병대로 환원시켜 주고 2작사에 있는 작전권에 대해서는 육군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군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박희승 위원** 그리고 현재 군의관들이 많이 부족한 현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의료대란이 작년에 있었지만 지금 군의관으로서 복무기간보다 사병 복무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대부분 사병으로 지원해서 빨리 군복무를 마치려는 게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군의관 확보 방안…… 그다음에 의사들이 없는 무의총에 군의관들이 대신 복무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저희 지역에는 공공의대 설립해서, 이게 의료사관학교가 될지 공공의대가 될지 이름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지금 법안이 통과 대기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의관 내지는 의료사각지대 확보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군의관뿐만 아니라 도서지방, 교도소 또 농어촌에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공공의대가 빨리 설립이 돼서, 향후 한 사오 년 뒤에는 부족 현상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이 법안이 통과돼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협력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출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군 자원도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지역에서 여성 공무원, 여자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생활이 안정되니까 자녀를 많이 출산하고 그래서 지역의 출산율에 상당히 기여하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군에서도 여성 군인들을 직업군인으로 많이 채용을 한다든지, 산간벽지에 근무시키라는 게 아니고 대도시 근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요즘 여성들이 잘 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특화 병과들 그런 데 인력을 늘리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군은 앞으로 병력이 감소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할 수 있는데 특정 지역에 특정 성별을 집중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군 특성상 상당히 제한된 사항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은 격오지나 어려운 지역에서 많이 근무를 하는 형태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고려하고 앞으로도 여군 확충을 계속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어쨌든 오늘 국방위에 와서 첫 질의를 드렸는데 장관님, 하여튼 문민장관으로서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많이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문민장관님이 되셔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겠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요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반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사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 ‘총기 소리를 들었다’ 하니까 지금 유튜브에 뭐가 나오냐 하면 ‘북한 공비가 와서 죽이고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하니까 아마 내일쯤 사실을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

또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먼저 얘기하고서 알게 됐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학성기도 조금 전에 임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칠거했다 그러고서 2대 추가 설치한 건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의 MDL 월경 사격도 20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유엔사에서는 30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국민들이 문민정권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제가 하나 읽어 볼까요? 이것은 우리 지역민들이 직접 쓴 글입니다.

‘화천은 늘 국가를 위해 희생해 온 땅입니다. 전방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에게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와 정확한 정보 제공은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북한의 도발은 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순간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믿고 사실을 숨김없이 공유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히 경고를 줍니다. 북한은 거짓말을 멈추고 현 정부는 쉬쉬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화천을 비롯한 최전방 군민들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묻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도 국민을 속이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직접 우리 군민이 쓴 글을 읽은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말씀드릴까요?

○**한기호 위원** 이렇게 지역의 군민들이 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박선원 위원님이 아까 보도판으로 죽 설명했는데 그 내용의 상당한 부분들은 비밀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한기호 위원** 비밀이 저렇게 나가도 문제가 없습니까? 비밀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길래 저렇게까지 상세하게 비밀이 나갑니까? 군에서 누가 저렇게 내보내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방부에서 나간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국방부장관님이 소관하고 있는 곳에서 나갔지요, 어느 부대가 됐든 개인이 됐든. 장관님이 책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오늘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아마 국방부 본부에서 나간 자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국방부 본부만 책임지십니까? 군정·군령권의 지휘권을 가지고 계신 장관님께서 국방부 본부만 책임지시는 것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박선원 위원이 제가 장관 재임 중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전에……

○**한기호 위원** 아니, 과거에 계실 때도 저런 유사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가셔서…… 장관님 가신 지 벌써 얼마 됐어요? 진상 파악이라도 해 봐

야지요. 저렇게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딴 게 아니라 군의 기강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이제 봤으니까 파악해 봐야지요.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한기호 위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다음에 장관님이 이번에 계엄 사태와 관련돼서 관련된 자들을 찾아서 신상필벌을 하겠다 하니까—이것도 제가 직접 제보를 받은 겁니다—소령·중령들이 ‘우리는 명에 따라서 한 것이지 명령이 없는데 우리가 움직였냐. 명령을 수명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이것은 군을 해체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와요.

실제로 지금 보십시오. 군인복무기본법을 발의한 게…… 장관님이 발의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한기호 위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명령권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명령을 하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헌법에 합치하느냐 않았느냐 이것은 명령자에게 있지 수명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지금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고 해야지. 제 머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일괄 답변하라면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한기호 위원** 조금 이따 답변하십시오, 그래도. 그 정도는 소화하셔야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박선원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상당한 부분이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훈련으로 한 것까지 다 몰아서 한다면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해야지……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계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내란특검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현역 군인들을 전부 다 때려잡겠다 그러면 누가 군대 생활합니까?

그다음,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장 임기가 본래 얼마입니까? 2년이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2년입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제일 장기간 근무한 사단장이 몇 개월 했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2년 3~4개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년 차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것은 이재명 정부보다는 계엄과 내란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이 가셔서 이 인사를 하려면……

○**국방부장관 안규백** 계엄과 내란이 없었으면 이미 지난 4월 달에 다 끝냈어야 맞는 것이지요.

○**한기호 위원** 아니, 자꾸 내란 평계 대지 마시고요, 내란 평계 대지 마시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지요, 그것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지요.

○**한기호 위원** 장관님이 가신 지 벌써 얼마나 됐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한 달 됐습니까? 오늘 딱 한 달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빨리해야지요. 지금 전방에 28개월, 33개월 이런 사단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빨리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빨리 안 하니까 결국은 본인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고 사실은 군부대 자체에도 군기가 이완될 수 있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잘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자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한기호 위원 지금 아직 30초 남았으니까 답변하셔도 됩니다. 장관님은 마이크가 안 꺼집니다, 제 마이크는 꺼지지만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7분 이내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MDL선상에서 월선이 있었던 건 맞고요. 그런데 10m 정도 이남 쪽으로, 우리 쪽으로 월선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국경선 작업을 하고 있던 북측 인원들은 30명이고 월선을 한 인원은 7명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30명이 아니고 7명이 10m 앞으로 월선을 했고 이건 예전 같으면 경고사격도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이 5m, 10m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 방송에 기관총으로 10발을 쐬던 것이고요. 월선은 7명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작업을 했던 인원들은 북측 인원 총 30명입니다.

그리고 내란과 관련하여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건 신상필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소령·중령들에 한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바로잡자, 지난 5·16 군사정변, 12·12 5·18 12·3 이 일련의 과정 선상에서 한 번도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나?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모든 인원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되 응징과 필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상도 주고 과한 사람은 별도 주고. 영관급들은 어느 정도 깊이 개입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런 사람이 많지 않겠다라는 이런 판단이 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과정 중이기 때문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장관님, 9·19 군사합의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9·19 군사합의……

○황희 위원 제가 보면 국회의원 300명이 선서할 때 거기 보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힘을 써야 된다’ 이게 적혀 있어요. 대통령 취임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의무예요. 9·19 군사합의 같은 남북관계의 조치가 다소 쌍방 간에 미진하고 이런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또 해야 됩니다. 그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의무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앞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방기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사드 갈등이 중국하고 막 있을 때 보면 제가 어느 뉴스에서 봤는데 호주인가 어딘가가 자국민 철수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블랙홀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한반도의 분쟁과 이런 것을 계속 끊임없이 회피해 나가는 것이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국방부장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무슨 긴장관계로 그냥 악화시키고 치닫고 이렇게 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질서를 흐리게 하고, 어떤 외국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난 내란 사태 때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저는 아주 창피해 죽을 뻔했어요.

우리 상황을 보고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김정은을 이제는 이해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빡 하면 다 퇴임하고 감방 가고 그다음에 쓸데없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내란을 일으키지를 않나,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지 않나, 이러니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불안했겠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러시아하고 북한한테 이런 얘기 듣고, 되게 불확실한 나라로 지금 이미지가 오점이 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조금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주한미군 군인들 감축 이야기도 나오고, 전력은 더 높인다고 하지만. 그다음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아주 거세게, 심지어는 지금 2.32%에서 61조인데 여기서 3.8%면 거의 97조~100조면, 우리 1년 예산이 700조인데요. 그렇게 요구하는데……

방위비분담금이 이게 나눠져 있지요. 한국 자체 방위력을 증가하라는 요구도 있고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좀 더 내라,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황희 위원 이게 어느 정도 포션이 나눠져 있는지 혹시,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황희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한미동맹의 관계라는 것이 과거 보면 한반도 분쟁, 남북 대치 상황에서 미군이 한국을 지원하는 이 업무가 거의 주된 업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동북아시아 역내에 있어서 전쟁이 발생하면 마치 한미동맹이 한국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게 전 정부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했거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황희 위원 합쳐서 답변해 주세요.

이게 자동 개입하게 돼 있는 건지, 그랬을 때는 전시작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건지, 남북한의 관계가 아니었을 때. 당연히 국회 동의 사항일 테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질의해 본 결과.

그다음에 주한미군은 3성 장군이고 주일미군이 4성 장군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한미연합 방위 체계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 방위비는 자꾸 늘어나고 뭔가 우리 역할보다 다른 역할이 더 커지고 남북의 문제를 떠나서 동북아시아 역내 문제로 확대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방위비 늘어나면 그게, 일본이 우리보다 주일미군 장성이 계급도 더 높고 한데 방위비 분담은 우리만 커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우리가 페이해야 되는지.

가령 대만 문제랑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왜 비용을 폐이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체계가 좀 바뀌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전시작전권까지 합쳐서. 이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단호한 원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고서는……

지금 사실은 제가 보면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 얘기할 때 보면 항상 무역 흑자를 얘기해요,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총량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텐데 이번에도 관세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전체적으로는 총량으로 이게 방위비까지 포함돼서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은 그거고 방위비만 따로 뚝 빼서 지금 협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장관님께서 군 내뿐만 아니라 외교부장관이라든가 기재부장관이라든가 국가 총량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지 우리 군만 따로 뚝 빼 가지고 이거 하면 이거 여기서 손해 보고 또 이쪽은 이쪽에서 손해 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권한과 안보가 더욱더 지켜지고 더 강화되느냐? 이런 것 같지도 않고, 책임과 의무 관계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계속 뭘 더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방금 비용 문제라든가 동맹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권한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세워 놓지 않으면 협상할 때 상당히…… 국내에서도 이야기할 때 질의응답할 때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 협상이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이후에 전략적 유연성 관련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것은 한국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존중한다. 이것은 명시적으로 명확히 나와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쟁론이 없는 사항이고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원·하원의원 또 미국의 국방장관하고 얘기해 봤을 때는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라는 것이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왔던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상원에서 이것은 표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는 대명제에 흔들림이 없다 이런 확약을 받았고요.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작년에 여덟 차례에 걸쳐서 이미 양국에 인준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다시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미 측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우리 측에 제안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관세와 안보 문제는 서로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세·안보는 패키지로 엮어서 둘이서 전략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안보장관회의나 각종 현안으로 나올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좀 짧게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서 헤그세스 장관하고 통화를 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이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추진하기로 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동맹의 현대화의 개념이 뭐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동맹의 현대화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 감축 또 여러 가지를 끓어서 총칭되는 단어가 저는 동맹의 현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을 한 부분 딱 잘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성일종 그 속에 한미방위협정에 맺어 있는 3조 이행 여부도 포함이 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저는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성일종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공해상에서 미군의 함정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참전을 합니까, 안 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공해상에서, 그러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서 같은 동맹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그것만 놓고 본다면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유엔해양법 92조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위원장 성일종 공해상에서의 선박이 그 나라의 영토에 준합니까, 안 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준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준하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이 한미방위협정 제3조는 태평양 연안에서 우리가 공격을 받든 미국인이 공격을 받든 그 영해에 준하는 곳이 받으면 자동적으로 참전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것은 다릅니다.

○위원장 성일종 왜 다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것은 다릅니다. 제가 모두에도 언급했다시피 동북아 지역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참여한 일은 없다. 그것은……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고, 동맹이라고 하는 의미는 알고 계십니까? 내가 공격을 받으면 동맹 맺은 상대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동맹이라고 하면……

○위원장 성일종 잠깐만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동맹이라고 하면……

○위원장 성일종 상대가 공격을 받으면 내가 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부분은 동의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어떻게 동맹이 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예컨대 미 본토가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같이 참전해서 싸워야 되지만……

○위원장 성일종 그 본토의 개념이 공해상의 함정이나 배도 영토란 말이에요, 유엔해양법 92조에 의해서.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단순히 함정 한 척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만 예컨대 대만 해역에서 양안 해역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염연히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지금 양안 해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안 해역의 공해상이 됐든 어디 됐든……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태평양 지역이라고 말하면 그 지역 말고 어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아니, 지금 공해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안에 문제가 생기면 공해상에 있는 것도, 예를 든다면 둉평의 거리가 2500km가 되잖아요. 그것을 공격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참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여러 가지를 놓고 판단해야 되지 단순히 그 팩트만 놓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놓고 판단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그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단순히 그것이 다른 이유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제3에 의해서 공격받은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 봐야지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러면 동맹이 아니지요.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한다고 한다면, 동맹을 깨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동맹을 깨자는 것도 일방 어느 한 쪽이 깨자고 해서 깨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양쪽이 합의해야 깨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맹은 어느 한 쪽이 통보로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해상이 됐든 본토가 됐든 공격을 받으면 영토에 준하는 곳이면 당연히 어느 쪽이든 참전을 해야 된다고요. 그 정신이 동맹 정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국제법과 해양법과 우리 법적인 검토를 한 후에 그것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닙니다. 장관님은 국방부장관으로서 이것들이 다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그런데 이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동맹이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동맹의 현대화 속에 유연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틀려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검토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현상을 놓고, 가정을 놓고 대답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정을 놓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아닙니다. 장관님, 가정이 아니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지요. 공해상에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잠깐만요.

이것은 가정이 아니에요.

○**황희 위원** 그러면 인도양 앞에서 공격받아 자동 개입……

○**위원장 성일종** 인도양은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평양이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반도에 예를 들면 미군이 북한만 상대로 와 있습니까? 우리 국가로 봐 보면 인근의 인접국가에 대한 제어력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자체가 북한, 우리 국가에서 보면 북한 억제로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주변국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같이하고 있

는 거란 말이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황희 위원**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어떻게……

○**국방부장관 안규백**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자관계에 맺은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주한미군은……

○**황희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되게 위험한 발언이세요.

○**위원장 성일종** 황희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주한미군은 북한 억제용만으로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돼 있는 일에만 우리가 참여를 하고, 맞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한반도가 북으로부터 공격받았을 때에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위원장 성일종** 그 부분에, 북한이라고 하는 한미방위협정에……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하시는 그 가상의, 가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황희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성일종** 아니, 국방부장관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제가 지금 그 이상 얼마나…… 제가 그 이상 얼마나 명확히 더 대답을 합니까?

○**위원장 성일종** 잠깐만요.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국방부장관이 헤그세스하고 함께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확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장관이 대비책을 세워야 되고 가능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국방부장관 안규백** 대비책을 세우고 있되…… 가정을 대비해서 태평양에서 공격받았을 때 대답을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잠깐만요. 북한만 가정을 딱 하게 되면 굳이 이것을 현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지요, 날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데 왜 현대화할 필요가 없습니까?

○**황희 위원** 아니, 이것 더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성일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희 위원** 저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니, 지금 제가 발언한 것에……

○**황희 위원** 저는 위원장님 발언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 성일종 아니, 여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장관님.

○황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잠깐……

○김병주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이따가 하시지요, 이따가.

○황희 위원 아니요, 저 지금 하고 더 질의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성일종 알겠습니다,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리세요.

○황희 위원 아니, 그냥 일반 위원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방위 상임위원장님께서 하신 얘기니까 저도 좀 첨언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외교적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미군의 한반도 주둔 목적이 대북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대중 대일 대러, 역내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외교적으로 상당히 고립시키는 발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한반도를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쟁터, 전진 기지화시키는 그런 발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라는 것은 남북 대치관계에 있어서의 역할인 거지 역내 러시아와 중국과 다른 나라,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 발발 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치 한반도의 공간을 활용한 것처럼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나서서 이야기하시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뭐가 됩니까? 발언에 대해서는 신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성일종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럴 생각이 아니고 한미방위협정은 어느 당사국이 침공을 받으면 거기에 개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주한미군은 미군이 북한만 상대로 한다면 여기 와 있겠습니까? 현실이에요. 동북아의 여러 가지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와 있는 겁니다.

○박선원 위원 다 아는 얘기 그만하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래.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은 종합적인 측면의 전략과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박선원 위원 다 알아요. 선생질 그만하세요.

○위원장 성일종 이러한 부분들을 장관은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대체 국익을 그렇게 훼손하려고 합니까? 지금 어떻게든 주한미군을 북한에 국한시켜야 되는데 국방부장관이라는 분이 어떻게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 한미동맹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어요?

○박선원 위원 어디서 맨날 선생질 하려고 그래,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정도껏 하세요, 위원장!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누가 선생질을 해요!

○박선원 위원 위원장이 그랬어요! 솔직히 알면 뭘 안다고……

○위원장 성일종 말조심해요! 도대체 말이야, 모든 걸 그렇게 끼어들어요.

○박선원 위원 위원장이 우리 여당 위원들 발언마다 끼어들잖아!

○위원장 성일종 정말, 다른 상임위처럼 퇴장시켜요?

○박선원 위원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 본인이 잘못한 것 반성하세요.

○위원장 성일종 도대체 말이야, 모든 것에 다 그냥 끼어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여기는

국사를 논하는 자리예요!

○**박선원 위원** 위원장이 사회를 똑바로 보세요.

○**위원장 성일종** 여기는 국사를 논하는 자리예요.

○**박선원 위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위원장 성일종**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서 광의적으로 다 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박선원 위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런데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박선원 위원** 왜 장관님한테 가르치듯이 아래라 저래라…… 한두 번도 아니고.

○**위원장 성일종** 누가 가르쳐요? 장관이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광의적으로 알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대식 위원** 그만하시지요.

○**위원장 성일종** 그러니까 미국 장관하고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개념에 대해서 묻는 건데 뭐가 잘못돼 있어요?

○**박선원 위원** 인사청문회 때도 발언 기회 12분, 15분 혼자 써 가면서 장관님한테 무슨 훈계하듯이, 한두 번도 아니고…… 정도껏 하세요, 위원장!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 참……

위원님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좀 쉬고 안 합니까?

(「잠깐 쉬고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일종** 잠시 회의장 정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고……

○**위원장 성일종** 예, 김병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를 꼭 응해 줬으면 좋겠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아까 제가,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10회 18대를 보냈다고 이미 언론에 공표가 됐잖아요. 지난번에 청문회 때 제가 최소 확인한 것이 백령기지에서 3회 9대 보낸 것까지는 제보를 받아서 했었고 그 이후에 열 차례에 걸쳐서 18대 보냈다고 했고 오늘 박선원 위원의 여러 가지 제보로 날짜까지 제공했지 않습니까? 10월 3일, 10월 8일, 10월 10일, 10월 31일, 11월 3일, 11월 8일, 11월 13일, 11월 19일.

자료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세부적인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인기 운용한 일자하고 횟수하고 시간대하고, 목표 지점이 평양하고 지난

번에는 남포였는데 어디였는지 그 정도는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드론사하고 하니까. 그 자료 요구에 응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12·3 비상계엄 내란 일어났을 때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었는데 그 때 발령 시간하고 해제 시간이 그다음 날 12월 4일 오전으로 돼 있는데 해제 시간하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진돗개를 말씀하시는가요?

○**김병주 위원** 예, 진돗개 둘, 요새는 경계태세 2급이지요.

그것하고, 가장 큰 문제로 그때 논란이 됐던 게 우크라이나에 비밀리에 탄약 50만 발을 우회 지원했다라고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미국으로……

○**김병주 위원** 예, 미군을 우회해서 지원을 했다, 50만 발 정도인데. 그것은 아마 비문과 관련되면 저희 의원실에 대면보고를 좀 보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것은 가능한 대로 또 비문이면 대면보고하고 또 가능한, 가능성 있는…… 비문이 아니거나 이런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보충질의……

○**부승찬 위원** 저……

○**위원장 성일종** 예, 간사님.

○**부승찬 위원** 잠깐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확인만……

○**위원장 성일종** 그러시겠어요?

○**부승찬 위원** 예, 확인 요청.

○**위원장 성일종** 예, 그러시지요.

○**부승찬 위원** 잠깐 한 10초면……

○**위원장 성일종** 의사진행발언 드리십시오.

○**부승찬 위원** 아까 합참의장과 관련된 질의를 하실 때 방산비서관 신설과 관련된 얘기로 돌려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뭔지, 실제 방산비서관을 신설한다라는……

○**국방부장관 안규백** 방산비서관 신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게 없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 그 의미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부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장관님, 오늘 현안보고 자료를 보니까 미국과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해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고도화를 위해서 핵협의그룹을 지속 운영하고 그다음에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합의를 마친 상황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핵협의그룹 NCG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달에 한 번 회의를 했고요, 금년 하반기에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대식 위원** CNI도 더욱 발전시키기로……

○**국방부장관 안규백** CNI는 미국의 핵과 우리 재래식 무기의 전력화인데, 작전하는 건데 이걸 더 고도화시키기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합의를 마친 상황은 아니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고도화하기로 돼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아직까지 그냥 하기로?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대식 위원** 한미 핵협의그룹하고 그다음에 핵·재래식 통합은 과거의 국방부 보고자료를 보면 영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번 현안보고 자료에는 영어로 표현하지를 않았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NCG와 CNI는 영어로도 쓰고 한글로도 쓰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만큼 업무가 과중합니다, 국방부가. 그래서 아마 잠깐 이렇게 빠뜨린 것 같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이 2개가 왜 필요한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날로 고도화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3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서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날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NCG 못지않게 CNI가 중요한 것은 재래식 무기, 핵인데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가 월등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강대식 위원** NCG가 지난 1월에 개최되고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아직 한 번도 개최 안 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마 이제 곧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대식 위원** 언론에 보니까 10월에 개최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날짜는 못 안 박았겠지만 약 한 10월에 개최된다고 보면 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대략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은 합의가 안 됐습니다. 곧 할 겁니다.

○**강대식 위원** 지난해 6월 한미는 CNI와 관련해서 범정부 시뮬레이션인 TTS와 도상훈련 TTX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올 1월 개최된 NCG에서도 한미는 CNI 연습 및 훈련을 논의했다고 이렇게 아까 전에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장관님, 혹시 CNI 관련 TTS나 TTX 있지 않습니까? 혹은 워게임을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제한적인……

○**강대식 위원** 제한이 맞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런 유의 어떤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맞습니다.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언제쯤 어떤 연습이나 훈련 이런 것은 아직 계획에 안 계시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강대식 위원** 정확한 계획 날짜는 안 계시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할 예정이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강대식 위원** 현 정부가 NCG와 CNI를 운용하기로 한미 간 합의를 했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북한이라든지 외부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오직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당당하게 연습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 만약에 그것을 눈치를 본다면 MDL 선상에서 5m, 10m 나온 것을 기관총으로 사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9·19 합의문 말입니다. 어떤 국민이나 어떤 국회의원이나 이게 상호 동등하게 합의에 이루어진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전 국민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강대식 위원** 이게 자꾸 불평등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저쪽 편은 안 지키고 이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합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평화적 통일, 이런 어떤 큰 틀에서 군 합의 문제는 국민들이나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판하는지는 몰라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서 월등히 우리 대한민국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핵만 가지고 있고 재래식 무기에서 월등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온갖 술수와 어떤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9·19 군사합의는 최초의 군사적 합의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문제를 봐야지 큰 틀을 뒤로 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면 양 바퀴가 전진해서 갈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생명선으로 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강대식 위원** 어쨌거나 간에 상호 동등한 속에서 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서로 대외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한 쪽만 기울어지는 그런 합의는 사실 저는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국방부 자체조사단을 편성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방부 감찰과 조사본부 등 각 군에서 지원을 받고 약 20명 정도로 해서 부대부대별로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그러면 범위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범위는 장성을 비롯한 영관급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해당 부대는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해당 부대는 제가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난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때도 그리고 장관님 청문회 때도 제가 계속 얘기한 것이 12·3 내란에 대한 수사나 조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번에는 전국 비상계엄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병력이 출동한 국회라든가 선관위 위주로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빙산의 일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가 여러 분야에 있지요. 그중의 하나가 실제 3개 지구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25개의 지역계엄사령부가 군단·사단에 설치된 것 알고 계시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김병주 위원** 그것도 조사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기 때문에 출동을 했거나, 출동을 준비했거나 또 그런 계선 선상에 있지 아니하지만 다른 어떤 숨어서 하는 인원들도……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계엄사령부를 설치를 하다가 중지된 것은 계엄 가담이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지구계엄사와 지역계엄사령부가 하는 역할이 그 지역, 예를 들면 후방지역 같은 도의 1개 사단 있잖아요 그 사단의 지역 계엄사령부가 돼서 그 도에 있는 행정권과 사법권을 관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 정보를 공유하고 지자체를 통제하고 지자체에 연락반을 다 보낸 것으로 제가 제보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지자체들도 거기에 가담을 한 지자체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제보받기로는 서울시라든가 강원도나 경북이나 대구시, 이런 데는 비상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연락반도 설치를 하다가 중지됐고 그런 것들이 군에서 지역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와 어떤 협조를 했는지, 그쪽으로 어떻게 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역계엄사령부는 자체 군사법원을 만드는 데 검찰을 오게 하고 경찰들 도움을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의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단순가담하고 그러면 징계로 끝날 사항이 있고, 국방부 자체로 진짜로 중대하게 병력을 출동했다든가 한다면 실제 내란특검으로 고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관련된 것은 지금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당해 지자체는 우리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병주 위원** 아니요, 우리가 지자체의, 지역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가 뭘 협조했는지, 그쪽으로 그것도 뭘 받았는지……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도 포함됩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을 포함을 하라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포함됩니다.

○**김병주 위원** 그 정도만 해서 넘기면 내란특검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늦었어요, 수사도. 장관님 되자마자 하도록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아마 20명 갖고 부족할 거예요.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취임한 지가 오늘 딱 한 달입니다.

○**김병주 위원** 한 달 되자마자 했어야지요.

그다음에 경계태세 2급 발령에 관계된 것, 아까 진돗개 이것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때 전군이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12월 4일 날 비상계엄 해제됐는데도 오전까지 탄약 까지 다 보급을 받으면서 대기한 것은 아주 중…… 그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관님은 조사단을 대대적으로 다시 꾸려서 좀 더 보강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속도감 있게 돼야 됩니다. 내란특검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연장을 해 주느냐 마느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감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장관님 되신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저는 이것을 제일 먼저 해서 지금쯤은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좀 늦었거든요. 좀 속도감 있게 또 범위를 넓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갈 길이 멀다고 배가 태풍을 이용하고 가면 제 목적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위치에 누가 있고, 뭘 어떻게 문제가 있고, 이것을 먼저 맥을 짚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순수 절차에 가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한 10일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예, 기대할 테니까요, 내란특검이 기간이 딱 90일 정해져 있다보니까 내란특검에서도 하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조사가 어느 정도 돼야 거기도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내란특검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수사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고발 조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장관님, 8월 13일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안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시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PPT를 보시면 조건 1과 2의 능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이미 마쳤고 SCM의 검증 단계로 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 있는 내용이니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PPT를 보시면 제가 전작권 전환 추진단하고 국방부의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조건 1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필요한 군사적 능력’, 대표적인 게 미래연합사 편성이고요. 조건 2는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그다음에 3은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역내 평가’인데. 조건 1 중에서 보면, 1은 지금 IOC는 완료됐습니다, 평가 검증이. FOC는 지금 평가는 일부 진행 중이고 검증이 안 됐고, FMC는 아직 평가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건 1과 2가 평가 마쳤다. 그리고 SCM 검증 단계에 가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은 정확한 사실관계에서 맞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조건 3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반도 역내 안보환경인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 지금 사실 매년 공동 평가를 연 2회 하고 있지만 관계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오히려 전작권 전환에 몹시 부족한 조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조건 1·2·3은 결국 공동평가가 진행 중이고 수준 달성 시 조건 1과 2가 FOC 검증 예정이고 하지 못했고, 조건 3은 아직 그런 수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면, 이것 보시면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를 보면 2006년부터 시작됐지만 결국 2015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하자고 하고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조건을 명시했지요. 그래서 2019년 8월에 미래연합사 IOC 평가가 완료됐습니다, 2019년. 그리고 20년에 IOC 검증 승인이 됐고요. 그러면 이게 1단계 IOC·FOC·FMC 중에서 IOC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연합사의 FOC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검증을 못 한 거예요.

그러면 IOC로부터 FOC까지 평가까지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60개월…… 현재까지가 60개월입니다. 저기 표가 약간 잘못됐습니다. 19년 8월부터 25년까지 하면 60개월 정도 되는데, 지금 25년 8월 현재 대통령 임기라고 하면 30년 6월인데요. 지금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못을 박았는데 58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게 앞서 조건 1은 우리의 미래연합사 군사적 능력이니까 이것은 2단계까지 평가했는데, 이게 군사적 능력은 열심히 하면 미래연합사 구조는 완성할 수 있다 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은 지금 아직, 이것은 진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고 특히 북한의 핵실험이 이제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라는 예상을 보면 이것도 좀 불안하고, 조건 3 한반도 역내 안보환경은 특히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협조해서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고 있고, 중국의 관계를 본다면 결국 IOC 평가로부터 FOC 평가까지 60개월 소요되는데, 저 표가 22년 8월 20개월이 아니고 25년 8월입니다. 60개월 소요되고, 남은 58개월 이내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만 이런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는 IOC·FOC·FMC라는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그런데 손쉬운 지름길을 택하게 되면 한반도 내 전력의 준비태세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동관리하고 고려하고 평가하는 접근법을 채택해야 하고 조건이 충족될 시에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작권 전환을 해서 조건을 바꿔서도 안 된다. 단순히 완료했다고 해서 서두르는 것은 한국에든 미국에든 이롭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한미군사령관이지만 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고요,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작권 전환 논의에 있어서 임기 내 추진이라는 시점에 서두르는 것은 자칫 평가를 위해서 정권 입맛에 맞게 출속으로 시행해서 동맹을 악화시키거나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해서 오히려 역내에 안보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먼저 강선영 위원님께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말은 퀘스천으로 들으면서 브런슨 말씀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는다 이런 투로 말씀하신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강선영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게 조건 1과 2는 평가가 안 끝났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조건 2에 대해서는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것은 이미 한미가 22년에 끝나서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킬체인과 KAMD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고요, 앞으로 또 투자를 할 것이고.

그래서 22년에 이미 평가를 끝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기 전에 국방 위원하면서 왜 22년에 평가를 끝내고 검증을 않느냐,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 군은 피 나는 노력을 쌓고 22년에 조건 2에 대해서 평가를 마친 겁니다. 평가를 마쳤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이번 한미 SCM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자주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목표는 세워 놔야지 목표도 안 세워놓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작권 전환은 임기 내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고 이미 조건 2에 대해서는, 이게 조건 3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조건인데 이것도 보면 사실 한미연합이라는 게 6개 구성군사령부를 갖출 만큼 촘촘히 연합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세계 속에서 유일무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건 2가 이런 상태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결론을 낼 때가 됐다, 또 상당한 진척을 갖고 왔다는 것이 우리 군의 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그래서 26년도 예산에도 KAMD와 킬체인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지금 투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대신합니다.

○**강선영 위원** 1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6년부터 이게 계속 추진하다가 10년도에 미뤄졌고 14년도 미뤄졌고 자꾸 미뤄지면서 2015년에 조건이 만들어진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그때는요 그때는 컨디션이 아니고 타임이었습니다, 타임. 그러니까 기간의 조건, 기간의 조건.

○**강선영 위원** 그때 시간에 기초를 하다가 두 번이나 연장되고 이것을 조건으로 바꿨을 때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지요, 예.

○**강선영 위원** 시간이라는 것을 두기에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가 어렵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을 못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지만 이것이 자칫 오히려 전작권 전환 추진을 하는데 북한한테 ‘30년 6월이 되면 무조건 전작권 전환 추진돼서 한미동맹은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바뀔 거야’라는 것을 미리 정보를 줌으로써 오히려 전작권 전환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거나 그때 만약에 조건이 안 됐다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막 입맞춤을 하느라고 조건이 변화되거나 조건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졸속으로 시행될까 봐 그게 염려된다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염려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촘촘히, 겸손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합참차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그리고 정보부장이시지요, 박진영 정보부장이신가요?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합참차장입니다.

○**박선원 위원** 정보부장 어디 계세요?

○**국방정보본부정보부장 박진영** 예.

○**박선원 위원** 죄송하지만…… 그냥 그러면 제가 거기 계시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약 8월 10일경에 합참의장·정보본부·드론작전사령부 등 해서 회의한 적 있지요? 합참의장 조사받고 나와서 회의한 적 있지요?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저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무인기를 보낼 때는 위치 추적을 아예 끄고 가면 되지 않느냐, 왜 지난번에 끄고 가지 걸려서 이 난리냐’, 그러니까 범죄 저질러 놓고 범을 개정해 버리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박선원 위원** 그런 회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드론 건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박선원 위원** 차장, 그 회의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없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세요?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예.

○박선원 위원 잠깐 들어가세요.

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시간 좀 끊어 주시고.

○국방정보본부정보부장 박진영 정보부장입니다.

○박선원 위원 부장님, 24년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어디 계셨습니까?

○국방정보본부정보부장 박진영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

○박선원 위원 부터 11시 10분까지.

김용현, 문상호 그리고 원천희 정보본부장과 함께 회의하신 적 없습니까?

○국방정보본부정보부장 박진영 아침에 현안보고드렸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랬지요?

○국방정보본부정보부장 박진영 예.

○박선원 위원 그때 그 회의를 마치고 문상호가 나와서 노상원에게 보고하는 것, ‘이번 계엄 보고, 장관에게 계엄 보고하고 왔다’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바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지요?

○국방정보본부정보부장 박진영 그 사항이 계엄 보고 여부인지는 제가 그때는……

○박선원 위원 계엄에 대해서 보고하고 왔어요. ‘계엄’이라는 말이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국방정보본부정보부장 박진영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그런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선원 위원 부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면 부장이 나중에, 먼저 나오시고 김용현, 문상호, 그다음에 원천희 본부장이 따로 계속 회의를 했습니까?

○국방정보본부정보부장 박진영 제가 나올 때는 정보사령관 같이 나왔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국방정보본부정보부장 박진영 예.

○박선원 위원 그리고 나중에 들어간 것도 아니지요?

○국방정보본부정보부장 박진영 나중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들어가고 나서 정보부장이 나중에 불려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계셨느냐 이 말이에요.

○국방정보본부정보부장 박진영 저는 처음부터 들어갔고……

○박선원 위원 처음부터 계셨지요?

○국방정보본부정보부장 박진영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런데 지금 ‘계엄’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지요?

○국방정보본부정보부장 박진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들어가세요.

합참차장님, 유엔사 정전규칙 있잖아요, 교전규칙.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예.

○박선원 위원 그게 있고 그다음에 합참의 교전규칙 있지요?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예, 교전규칙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리고 전시 따로 있고 평시 따로 있지요?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예.

○박선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내란특검에 자료 제출했습니까?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그것은 한미연합 비밀이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연합 비밀인데, 그러면 수사 대상인데 왜 떠떳하면…… 대출이나 열람도 안 됩니까?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열람까지는 했던 것으로 제가……

○박선원 위원 열람을 했습니까?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정확하게, 그것 수사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그 교전규칙을 대여한다든지 이렇게 했습니까?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차장이나 누가 가서 열람을 시켜 드렸습니까?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한미연합 비밀은 열람이 아마 안 될 것이고 우리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똑바로 지키고 충무 1·2·3 상황이 오지 않도록 평시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합참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예, 맞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런데 충무 1·2·3의 상황을 유발시키는 것은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충무 1·2·3 상황을 도발, 유발시켜. 그것은 합참의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잘못된 것 이지요?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예, 그것은 맞고 지금 결국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수사 진행 중이지요?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예.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수사 진행 중인 것은 매우 중요한, 다른 수사도 아니고 내란에 관한 수사 아닙니까? 그것 왜 협조를 안 합니까?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최대한 협조를 했습니다.

○박선원 위원 협조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예.

○박선원 위원 그러면 유엔사의 교전규칙을 열람하거나 수사관이 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아마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예.

○박선원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년 11월 17일 노상호·문상호·정성욱이 계엄에 관해서 문건 10장짜리를 놓고 회의를 했고 18일 중령과 소령이 몽골에 급파되었습니다. 몽골에 급파되어서 현지에 있는 정보사 요원을 활용해서, 몽골 정보기관 요원을 협조자로 활용해서 북한 대사관하고 접촉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조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보고만 받았지 직접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 총풍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꼭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박선원 위원** 해군참모차장 계십니까?

○**해군참모차장 최성혁** 예.

○**박선원 위원** LTS 사업 알고 계시지요? LTS 사업, 군수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라이프 타임 서포트(Live Time Support). MRO 사업 알고 계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2022년부터 약 1500억이 지금까지 지출되고 있는데, 우리 선박의 정비사업이잖아요.

○**해군참모차장 최성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요?

우리 선박의 정비사업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체가 투입되는 정비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자체가 투입되지 않는 정비사업이 있는데 모업체에서 자체가 투입되지 않는 사업을 자체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해서 국고를 횡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혹시 감사 별인 적 있으십니까?

○**해군참모차장 최성혁** 제가 알고 있지는,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감사하신 적 없으십니까?

○**해군참모차장 최성혁**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2025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약 300억 정도의 국고 손실 내지는 횡령이 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산 심사하고 있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LTS, 라이프 타임 서포트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해군의 전력이 보다 확실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군에서는 확실하게 그것 조사를 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결산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해군참모차장 최성혁** 예 그러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방사청장님, 최근에 PKX-A,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의 성능개량사업 중에 대유도탄기만체계 선정 관련해서 의문이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서 그와 관련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 고속함 성능개량사업은 적 대함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정된 장비 획득·설치 비용이 증가할수록 사업비가 최대 2518억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산출이 됐지만 1247억에 중도 확정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방사청이 결정한 바에 따르면 예산이 상당액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독일 기술 도입 장비가 선정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PPT에서 보시는 세 가지 장비 관련된 가격, 이 액수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맞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요군인 해군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해군에서는 이 3개 제품 모두 ROC 충족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에 있어서 하나는 20억이고 하나는 8.8억 약 9억인데, 두 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데 두 배 이상 비싼 장비가 선정된 이유는 뭐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능개량과 관련되어서 체계를 종합하는 업체는 HJ중공업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가격으로 따지면 당연히 중간에 있는 저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전 장비를 체계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아마 HJ에서 저 세 기종을, 물론 두 기종을 갖고 평가했을 때, 전체적인 사업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비용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성능과 운용 적합성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평가했을 때 왼쪽에 있는 장비가 더 적합하다고 HJ중공업에서 판단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H사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방사청의 지침 또는 교감 없이는 업체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사청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방사청에서는 대당 8억여 원인 프랑스 기술 도입 장비 연구개발이 미완료됐고 시험성적서도 미제출됐을 뿐 아니라 전투 체계 등 연동 개발비 등이 포함돼서 가격 증액이 예상된다 이렇게 해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4월 14일에 방사청에서 방산기업 CEO들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그 때 K-RBOC NG는 검토된 장비의 하나이고 국내 개발 완료로 작전운용성능 충족 및 함정 설치·운용 가능, 국내 구매·도급으로 획득 예정이라고 검토를 했었는데 왜 지금은 연구개발이 미완료됐다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 연구나 사업 타당성 중간 토론회 시에는 국내 개발 완료된 것으로 검토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체계개발업체의 입장에서는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야 되는데 그때 해당 업체에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결국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 종합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용뿐만 아니고 비용 외 분야도 전체적으로 기종 결정할 때 평가 항목인데 그중에서 운용 적합성 이런 측면에서 그 회사가 좀 낮게 평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한화시스

템인 MASS가 되고 이 회사는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미제출됐다고 말씀하신 서류에 대해서도 탈락한 티사에서는 제출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인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저희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는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H사 것이 결정이 되면 총 비용이 어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아마 이 대당 가격이 한 두 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이삼백 억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용원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그러면 이 예산 증액이 되려면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할 텐데 기재부하고도 좀 협조가 되셨나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사청의 희망 사항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 PPT 좀 띄워 주세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장비가 회전식이어서 오른쪽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앞부분과 뒷부분에 사각지역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방사청 포함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국산화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를 해 오셨는데 그런 맥락하고도 이번 결정은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수한 능력을 가진 국내업체들이 체계업체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업체와의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하여튼 부품 국산화뿐만 아니고 우수한 기업들이 체계업체하고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백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장관님, 저는 오늘 군 내부의 성희롱·성폭력 문제, 예방과 대응 그리고 성인지 문화 조성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께서 63년 만의 문민 장관이시다 보니, 특히 군 내부의 인권 문제나 또 처우 개선을 비롯한 복지 문제, 많은 부분에 대한 기대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

심을 가지실 때 역시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이 있었지요. 2021년이기 때문에 벌써 한 4년이 됐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었고요. 사망은 아시겠지만 성추행과 그리고 2차 가해인데 사실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마는 2차 가해가 그에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군 내부의 군검찰이 사건을 은폐·무마·회유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정황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진행됐었다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저를 비롯해서 또 일부에서는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도 않고 좀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군 상부의 조직적 사건 은폐 전모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건 이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군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군검찰이 진행을 해 오던 일을 이제는 군 성폭력범죄 등 3대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경찰에 이첩해서 군에서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그래서 군인권보호관도 신설을 했는데 이러한 어떤 군 내부에서의 민낯을 드러내고 공론화시키고 하게 된 사건은 사실 이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유가족의 말씀에 의하면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공군의 이영수 참모총장이 당시에 추모패와 더불어서 추모비 건립을 약속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현재까지 추모비 건립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군 내부에서 평가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과 관련해서는 군 내부에서 유사한 일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민낯을 조금 드러내고 공론화시키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고 하는 데에는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고 이예람 중사와 관련해서 추모비 건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사실은 추모비 건립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도 군 내부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진행되고 있지요. 연간 5000~6000건 정도의 관련된 상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불행히도 그런 사건사고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디지털시대에 살다 보니까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도 만연되고 있는 만큼 또 군 내부에서도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감성을 저는 국방부장관님을 포함해서 간부들 그리고 군인 모두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추모비 건립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참에 또 문민 장관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성고충 전문상담관 제도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50만 군인이라고 하는데 그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 많이 늘려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예방교육도 받아야지만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드린 대로 추모비 건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현충원 봉안식 때 전임 신원식 국방장관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애도를 하신 것으로 또 추모패를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 훈령에 보면 추모비는 전사나 전투에서 그에 대한 합당한 공적을 세운 사람한테 추모비를 건립하기로 훈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전통적인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백선희 위원**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면.....

○**국방부장관 안규백** 글쎄, 이것은 추모비가 전사와 전투의 어떤 특별한 공전.....

○**백선희 위원** 추모비 관련된 것 말고요. 성희롱·성폭력 문제, 성인지적 문화 조성과 관련해서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도,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더 투여가 돼서 많은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 군에서도 반복·단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의 특성상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군은 사실 하나의 작은 우주입니다. 작은 우주이기 때문에 피 끓는 청춘들이 있는 곳이라서 계속 반복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장관님, 현안보고 자료 5-1페이지지요. 여기 국방개혁과 관련돼서 장관직속의 국방개혁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국방개혁추진단이 운영 중에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방개혁추진단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아직은 구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승찬 위원** 다시 한번 이제 군에 대해서, 군인에 대해서, 군인에 투자하자에 대해서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국방부에서 26년도 국방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하면서 국방위 위원들한테 건의가 온 것 중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장교 1명, 부사관 1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군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관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군의 병역제도, 징병제도는 폐지가 답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저는.....

○**부승찬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구조적으로도?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이 세상에 공평한 것이 저는 징병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모병제가 되면 공부 잘하거나 유수 대학을 나오거나 그러면 누가 군대를 보내겠습니까? 저도 아들이 셋인데 누가 군대를 보내겠습니까? 그나마 형평성과 평등성이 맞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개병제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군인들의 봉급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군인들의 급여와 봉급에 대해서는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사회질서를 지키는 사람이고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목숨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수평적 가치에서 놓고 봤을 때 경찰과 군을 같이 놓고 보면 저는

평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승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군인들의 본봉이요 어찌 되었든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고정되어 있어요. 특별법을 통해서 조금씩 인상도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20년부터 24년까지 국방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총액을 뽑아 봤어요. 그냥 단순 비교입니다. 너무 의미를 갖지는 마시고요. 3조 2732억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부사관 하사부터 4성 장군까지 기준 보수 인상을 한 2.4%를 제외하고 2%를 추가 인상할 경우 향후 5년간—그러면 10% 정도 인상이 되는 거지요—필요한 추가 소요 재정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2조 4773억 원,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만 조금 높여 주면 충분히 직장으로서의 군, 오고 싶은 군, 이게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단순히 아까 얘기했지만 당직근무비나 이사화물비나 전투역량강화비나 학군생활지원금이나 민간위탁 급식이나, 이것으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군은요 진짜 국가안보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처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의 사례, 제가 대만 쪽에다 확인을 했더니 대만은 기준 공무원의 똑같은 근무 연수의 비슷한 직급을 비교했을 때 20% 정도 기본급이 높다고 합니다, 군이.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이제 봉급 인상이 아니라, 징병제를 폐지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평등성의 문제도 있고. 그러나 보니까 의무복무 병사들이 우울증에 의한 사망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순직은 1·2·3형으로 나눠요.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직 3형이 추가된 게 2012년입니다, 법률이 개정된 게.

어떻게 우리 장병들이, 징병제가 아니면 군대에 올 일도 없고 그러다 보면 자살할 이유도 없고 훈련 중 사망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라고, 이것은 자살이기 때문에 순직 3형이야, 이런 것들이 과연 누가 어떤 부모들이……. 만일 자살해서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가정은 파괴가 됩니다, 아예. 그런데 12년까지는 전부 순직 처리를 해 줬어요, 위법한 행위가 없을 때는. 그런데 이것을 1·2·3형으로 굳이 등급을 나눌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유족 중의 한 분이 지난해 자기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었는데 아크 부대에 파병을 나갔다가 자살을 합니다.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 PKO 파병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예우를 달리합니다. 화물칸에 시신을 운송하고, PKO는 그게 아니래요, 최대한 예우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물건이에요. 화물차에 그 죽은, 사망한 사람을 PKO 파병이 아니고 비 PKO 파병이라 국내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화물창고를 이용해서 시신이 인도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순직 1·2·3형에서 3형은 빼야 됩니다. 어차피 위법한 경우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분류하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가서 자살했는데 거기다가 순직 3형이 됩니까. 제가 이 법을 발의할 텐데요. 국방부에서도, 이게 그냥 그 아들 하나 죽는 게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무는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행위자의 행위를 강요합니다. 사명은요 내부에서 발현되는 행위입니다. 의무감을 갖게 하지 말고요. 사명감을 갖게끔 해 주십시오.

말이 길었습니다마는 이 법률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질의가 길어져 가지고 답변 시간이 없네요.

○**위원장 성일종** 하십시오.

○**부승찬 위원** 아니에요. 마이크가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이 불편할 것 같은데……

○**위원장 성일종** 하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이 되면 안 되는데……

사실 우리 군대의 여러 가지 현상은 사회의 병리 현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우리 군에 대한 특별한 조치들과 합당한 예우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병리 현상이 군에서 그 책임을 떠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좀 더 나서 주기를 바라고.

사실 제가 2013년도 간사를 하면서, 연금법 개정을 하면서 그 당시 공무원연금법은 개정을 했는데 군인연금법은 손 안 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약 1조 5000억 이상이 매년 손실이 났는데 군인은 특별한 예우를 해 줘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형평에 놓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 군인연금법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도 사회가 발전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가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인데 아직도 우리의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64년 만에 문민 장관이 온 것은 군의 복지를, 우리 군인들의 복지를 또 중간 간부 이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는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도록 이번에 제가 그렇게 많이는 못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저도 총력 질주를 걸고 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협안 등에 대해서 논의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복지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같이 해 주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직 처리 개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류의 핵심 가치는 저는 항상 인간에 있고 사람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사가 됐든 순직이 됐든 물론 차등은 줘야 되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순직 처리 문제 개선책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제가 협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승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장관님, 우리 군이 지난 7월 17일 날 동해영토수호훈련 실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당시 참가 전력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평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평균 수준으로? 해군과 해경 함정 일부만 참가를 했습니다.

과거 정부 중에서 어느 정부가 가장 전력을 많이 투입해서 훈련했지요? 잘 모르시지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이것 보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정부 때 최대 규모의 참가 전력이 있었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랬군요.

○임종득 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9년 후반기에는 FTX를 안 했습니다. 유일하게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훈련은 윤석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훈련을 했는데 첫 훈련 참가 전력이 거의 윤석열 정부 그다음 문재인 정부 후반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어요.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평년 정도의 연합훈련을 했다고 했는데……

○임종득 위원 조금 적습니다. 제가 파악을 했는데 적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슬라이드 하나 올려 주시지요.

이것 기억 나시지요? 국방위원 하시면서 작년 9월 2일 날 질문하신 내용이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독도방어훈련이 축소되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적을 명시해야 하는데 적시하지 않고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훈련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지요? 적을 적시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더 좋은 내용이 많을 텐데 왜 이것만 딱 꼬집어서 이렇게……

○임종득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전 정부에서 했던 내용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에 또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국방 야당 위원님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논리를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정부가 바뀌어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어떠냐를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더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 장 보시지요.

김민석 총리님이 국방위원 하실 때 하신 내용입니다.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가 규모가 더 작고 공개보다 비공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질적으로 훈련이 더 강화되었다는 이유, 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는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과거보다 훨씬 적게 전력이 참가했고요. 비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약화되었다고 판단하는데 강화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저한테 제시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보고받을 때는 평년 수준이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임종득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훈련을 할 때 있어서는 우리 군의 보안도 중요하고 우리 국익을 고려해서 훈련의 규모라든가 적을 가장하든 안 하든 공개하든 안 하든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내로남불처럼,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장관이 되어 보셨으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느끼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늘 공개된 행사로 치러졌다고 강유정 민주당 당시 의원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25회 정도 13년 이후 훈련을 했는데 딱 세 번 공개했습니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비공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이 되시고 난 지금.

○**국방부장관 안규백** 작전성에서 큰 하자가 없으면 공개하는 게 맞지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임종득 위원** 작전성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때그때마다 동해영토수호훈련이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전성이라는 것은 군사작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 장…… 알겠습니다.

UFS 연합연습 조정과 관련돼서 국방부 입장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통일부와 국방부의 입장이 틀려요. 한번 보십시오. 통일부에서는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NSC하고도. 국방부에 물어보니까 이게 답이 서면으로 온 겁니다. 통일부로부터 협조 요청받은 바 없다. 장관님 어느 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통일부에서 직접적인 협조 요청을 한 바는 없는 것은 맞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왜 통일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건 통일부로 가서 제가 물어봐야지요. 제가 어떻게 통일부 입장 을 알겠습니까?

○**임종득 위원** 그런데 부처 간에는요 사실 NSC라는 기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각 부처를 불신할 수도 있고 우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조율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또 한 가지, 다음 장 한번 넘겨 보시지요.

연합연습 조정 과정도 좀 매끄럽지 않아요. 사실 제가 8월 4일 날 물었을 때 서면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3일 뒤에 8월 7일 날 한미연합연습에 FTX를 조정한다고 공식 발표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훈련을 계획하고 변경한다고 그러면 3일 만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4일 날 물었을 때 그런 거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7일 날 딱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유를 이야기한 것은 장관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폭염이나 그다음에 수해 피해에 관련된 부분, 연합사령관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통일부는 또 달라요, 답변이. 왜 그런 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통일부 입장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여튼 이건 한미 간에 합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제가 이걸 집요하게 묻는 이유는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한미연합연습과 관련돼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나오는, 발신되는 내용들 상당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미연합연습 자체를 축소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쪽으로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국방부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지요, 사실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처 간에 서로 맞지 않는 메시지가 나오는 걸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국방부장관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 가면서 주도적으로 훈련에 관한 부분들은 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저는 연습은 감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연습 않는 군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지난번 장관님한테 질의할 때 국회협력단에 대해서 국회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우리 협력단이 12·3 계엄 이후에 국회에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호 위원** 가능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가능치 않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장관님이 꽃발이 얼마나 센지 좀 봐야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건 좀 한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지금 사실 제가 협력단에 와 있는 육해공군, 합참부터 방사청까지 전부다 불러서 뭘 얘기하고 싶어도 지금 국방부 별관에 있잖아요. 부르기가 미안해서 못 부르겠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빠른 시일 내에 원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런 세심한 것까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제가 불편해서 그래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래요?

○한기호 위원 예.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면 더 좀 늦출까요?

○한기호 위원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난번 진중문고와 관련돼 가지고 내용을 제가 구구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진중문고를 선정을 할 때 선정 절차가 이미 국방부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30조에 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든지 이것을 다시 진중문고를 폐기하려면 이 절차에 따라서 한 심의위원회가 운영돼야 되지 않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런데 이 진중문고와 관련해서 우리 장병들의 정서 함양과 어떤 교양 증진에 대해서 진중문고가 많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용에 논란이 있는 그런 진중문고에 대해서는 폐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할 수 있다고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국방위원회도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얘기한 걸 가지고 그걸로 폐기를 합니까? 그러면 심의를 했습니까, 폐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총 예산이 얼마예요? 1억 2000만 원 들어갔지요. 9948권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1억 2000만 원, 이 책은 다 가져다 뭐 하십니까, 회수해서? 소각장으로 보내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진중문고에 대해서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폐기 검증 절차를 거쳤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기호 위원 예.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런데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과 명시적으로 심의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마는 폐기할 때는 여러 가지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아마 폐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장관님이 결재하셨을 거 아니에요? 1억 2000만 원을 버리는데 그러면 장관님이 결재하지 않고서 그냥 폐기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아까도 처음에 장관님으로 가셔서 결정하고 이거 할 때 지침을 줘야 되고 결심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가장 힘든 부분의 하나인데 왜 폐기하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우리 국방부에서 이 내용 중에서 보니까 맞는 부분도 있고, 폐기해야 된다는 내용에 있어서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승만 정권 49년도의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정보 이상은 유상매입 유상분배해서 부를 균질하게 하는 이런 정책은 사회제도적으로 굉장히 평가받을 만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전투에서 기도에 의해서 구름이 걷히고 낙동강 전투가 승리했다 이것은 좀 너무 허무맹랑하다, 이건.

○한기호 위원 승리했다고는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책을 구해 가지고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낙동강 전투에서 방어를 위해서……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성공했다가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기호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방어를 성공했지요. 그런데 기도를 해서 성

공했다 이렇게 표현돼 있지는 않아요, 기도를 했다고 돼 있지.

○**국방부장관 안규백** 기도를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으로 기술을……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게 특정 종교에 대해서 미화한 거로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특정 종교의 미화가 아니라 너무 이건 좀 지나친 표현이다, 이게.

○**한기호 위원** 낙동강 방어선 성공한 게 그렇게 껄끄러우세요? 아니잖아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지요, 아니지요.

○**한기호 위원**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분제 제도나 이런 문제, 신분제란다……

○**한기호 위원** 과도한 반응 아닙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글쎄, 뭐 과도한 반응이라고……

○**한기호 위원** 이거를 처음에 채택할 때 이 작가가 이걸 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 중에서 이걸 심의해 가지고 선정한 거예요. 내가 작가하고도 앉아서 한참을 얘기해 보니까 작가가 이걸 해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여러 가지 묘사되는 부분이 부적절해서 폐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무슨 선입견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 작가가 이걸로 인해서 자기 작품에 대한 것을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까지 뭐 하려 갑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여러 가지 놓고 저희들은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편견을 가지지 마십시오,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은 종교가 없으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한기호 위원** 종교가 없다고 종교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펑박해도 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너무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한기호 위원** 펑박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펑박 아닙니다.

○**한기호 위원** 조금만 더 주십시오.

지금 공공요금 때문에……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남들은 다 1분만 쓰는데 왜 위원님은 2분 쓰시려고 그럽니까?

○**위원장 성일종** 추가질의 하시지요.

○**한기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박선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장관님께도 해당되는 질문이고 위원장님께도 해당되는 질문인데 미안하

지만 정보본부 정보부장 잠깐 나온 상태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거는 저한테 얘기를 해야지……

○박선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나올 필요가 있어요. 잠깐 나와 보세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아니, 그거는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세요.

○박선원 위원 정보본부장이 연합연습 관련해서 불참하셨다고 위원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성일종 그게 무슨 얘기지요?

○박선원 위원 아니, 오늘 정보본부장이 지금 불참했잖아요. 불참한 이유가 연합연습 때문에 불참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성일종 정보본부장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어요.

○박선원 위원 정보본부장.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UFS 연습 때문에 이승호 작전본부장하고 원천희 정보본부장이 공동으로 통제 중인데 현재 작전본부장이 직무배제 상태이므로 연습기간 중이라 이석할 수 없어서 정보본부장이 못 나오고 부득이 정보부장이 대참했다. 그렇게 돼 있지요? 그렇게 해서 나오신 거지요?

○국방정보본부정보부장 박진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이 시간에 그러면 오후에 정보본부장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방정보본부정보부장 박진영 B1 훈련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전투상황실에 있어야 되지요? 지금 전투상황실에 있지 않아요, 2시부터 777사령부를 방문하고 있는데 그 사령관이 누구입니까? 충암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김용현이 계속 무인기 등을 보내 가지고 적을 교란시켜서 도발을 유도하는데 적이 어떻게 반응한지 그것을 감청해서 보고한 사람이 777사령관인데 지금 정보본부장이 자기 777사령부에서 말 맞추고 있다 이런 의심이 드는데 연합훈련 기간에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국회에도 못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부장 어디 계신지 알아요? 복귀했어요, 전투상황실에?

○국방정보본부정보부장 박진영 오전에 777사령부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오후에는?

○국방정보본부정보부장 박진영 오후에는 복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몇 시인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현재 지켜야 할 전투상황실에 위치하지 않나요?

○국방정보본부정보부장 박진영 제가 보고받은 건 11시부터 한 14시 30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요. 왜 거짓말을 하면서 전투상황실을 지키지도 않은 사람이 전투상황실 때문에 여기에 못 나온다고 하면서 30분 딱 걸쳐 가지고 그렇게 하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박선원 위원님, 그거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조치하든지 행정적

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장관님, 그것 좀 잘 유념하시고 짚어 주십시오. 전투상황실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뭐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니, 사유서하고 틀려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박선원 위원님 조치하세요.

○박선원 위원 알아서 할 거예요. 위원장님 그런 거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아니요. 나 그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행정 조치를 하세요.

○박선원 위원 그렇군요. 왜 합니까, 그러면.

.....
○위원장 성일종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위원장 성일종 군사기밀을 유출이 안 되도록 이거 관리를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관들이 다 신경을 써야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건 기본 임무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기본 임무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위원장 성일종 또 철저히 지금 현재 군이 중요한 1급·2급 군사기밀의 등급에 따라서 1·2·3급이 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이거를 다 관리하고 있나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나름 철저히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오늘 북한의 군사분계선에서 있었던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국방위원장한테 와서 보고받을 때도 2급 비밀입니다하고 사인을 받아 갔거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사실 그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기밀도 아니에요. 위치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마 다른 데 위성 사진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군사기밀이 나갔다 그러면 군사기밀에 대해서 조사권이 어디 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조사권이……

○위원장 성일종 국방부 내에, 장관님 휘하에 어디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런 기밀을 관리를 해야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하거나 조사시킬 권한이 어디 있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몇 군데가 있겠지요. 방첩사도 있을 수 있고 또 감찰도 있을 수 있고요.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그런 군사비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에 대해서 나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안규백 어디서 언제 나갔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얘기할 거예요. 그런 기밀이 나갔으면 방첩사에 지시를 해서, 상당히 중요하지요? 나갔으면 누가 나갔는지 그 원인 다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지시를 하셨나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이 나갔는지를 알아야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그것을 제가 얘기할 거예요. 여기 보면 군사 2급 비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이 다 있는데 이게 군사령부에 포함된 편제·장비·현황까지도 2급으로 되어 있어요. 유도무기 같은 경우는 저장시설·수송계획, 심리전 심리작전계획, 부대장비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군사기밀이라는 것 동의하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밀 문서, 1·2·3급 등급표에 관련된 것은 다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군은 통신보안까지도 비밀로 하기 때문에 이런 허튼 데서 문제가 발생돼서 큰 것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의무를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런데 내란특검에서 수사를 하면서 드론부대의 위치에서부터 향수, 장비 수, 좌표명, 부대명 다 발표를 했습니다. 수사 과정이 유출됐습니다. 이것 수사를 해서 조용하게 기밀로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말입니다, 언론에 나와 가지고 실시간 방송하듯 다 했어요. 내가 그 이후에 방송에 나가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관님, 이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조치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특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성일종 특검이든 군 내 보안과 관련되는 게 거기서 흘러나왔으면 장관님이 이것에 대해서 특검에 협조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기무사를 통해서 이것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못 나가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뭐……

○위원장 성일종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작전장비의 스펙까지도 항로까지도 다 얘기해버렸어요. 지금 국방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그 부분에……

○위원장 성일종 잠깐만요.

전에 계엄이 났을 때 박안수 대장 여기 와 가지고 얘기할 때 ‘몇 층, 몇 층에서……’ 얘기하는 것도 내가 제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어느 누구를 통해서 이게 나오든 특검을 통해서 나오든 이런 기밀이 나왔는데 어째 국방부는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인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인지를 못 하기는요. 장관님, 이게 언론에 엄청 나왔습니다. 군과 관련 돼 가지고 여러분 참모들이 장관님한테 ‘이런 것들이 흘러 나갔습니다’ 보고 안 했으면 여러분들 다 옷 벗어야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국가의 기밀이 지금 막 나가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이러한 기밀조차도 특검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법령 체계를 위반해도 되는 겁니까? 조사하라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조사를 해서 기밀을 유지해야지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이런 게 다 허무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검토해서 필요시 특검한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장관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처벌해야 되고. 그러나 이 조사는 정확하게 파일 업(file up)을 하고 기밀을 요하면서, 국가의 기밀이 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바로 잡아야 될 게 있는게요 국방부장관은 방첩사에 지시할 수 없습니다. 군사법원법이 그렇습니다. 각 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습니다. 방첩사는 인지된 사건이나 그리고 고발 사건 내에서만 수사·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방위 차원에서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국방부장관께서 방첩사에다가 지시하는 것은, 수사 지시는 그것은 군사법원법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 점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 수사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방첩사는 제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알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리고 지난 국감 때도 GP 검증과 관련돼서 합참 쪽에서 비밀이 새 나갔어요. 비밀이 새 나갔고, 이것은 정말 심각한 군사기밀 누설 혐의인데, 합참 GP 검증과 관련된 보고서가 새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종합국감에서 합참이 이 비밀을 일반화 작업을 해서 공개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합참에서 어떤 인물이 GP 검증 보고서를 사전에 국회에다 유출했는지 이것을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방첩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이기 때문에 장관이 수사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군사법원법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요.

○부승찬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방첩사 할 수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승찬 위원** 제가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장관은 수사할 수 있어요.

○**부승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니, 이게 수사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러한 정보가 흘러갔기 때문에 당연히 군은 이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할 수 있다고요.

○**부승찬 위원**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김용대의 변호사가 흘렸다는 거잖아요.

○**한기호 위원** 간사가 더 잘 안다고 그러잖아요.

○**부승찬 위원** 장관님, 군사법원법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GP 검증 보고서 합참에서 누설을 했습니다. 보고서, 2급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알았어요.

○**부승찬 위원** 그것 국회에다가 설명을 하고 그것이 누설되고 국정감사 때 활용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합참이 꼼수를 부려서 그 2급 비밀을 일반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다가,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이런 꼼수에 대한 수사 지시를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 및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의견들은.....

○**임종득 위원** 질의 더 있는데요, 왜 물어보지도 않고 끝내요? 나는 아직 많은데.....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 또 있으니까 그때 하시지요.

○**임종득 위원** 되게 많은데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오늘 그만하시지 그래.

○**한기호 위원** 우리가 야당이니까 하는 거예요.

○**임종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이만큼 정리를 해 놨는데 왜 그렇게 벌써 끝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오늘 결산인데 뭘 그렇게.....

○**위원장 성일종**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의견들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책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아니, 좀 더 합시다.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아직 네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끝내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박선원 위원** 서면질의하세요, 나도 그러니까. 나도 서면질의 냈어요.

○**한기호 위원** 야당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면서 그래요.

- 국방부장관 안규백** 한 위원님, 오늘 결산인데……
- 임종득 위원** 결산 및 현안보고……
- 한기호 위원** 결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결산에 대해서.
- 국방부장관 안규백** 결산인데 지금 6시간을……
- 한기호 위원** 아직 시간은 많아요, 오늘 24시까지.
- 박선원 위원** 소위 때 합시다, 소위 때.
- 임종득 위원** 지금 밤새 가지고 써 준 우리 보좌관들의 노력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이 회의만 훼방 안 하면 빨리빨리 끝낼 수 있어요. 앞으로 협조 좀 해요.
- 박선원 위원** 예, 위원장님.
- 한기호 위원** 저는 예결위원회 갔다가 부리나케 온 거예요, 또 질의하려고.
-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종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웃으면서 하니까 그냥 하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 위원장 성일종** 임 위원님 충분히 알겠고요. 오늘은 결산입니다. 그리고 또……
- 임종득 위원** 아니, 결산 및 현안보고 아니에요?
- 위원장 성일종** 아니, 예산 할 때가 있으니……
- 한기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예산 쓴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게 있다니까요.
- 위원장 성일종** 그래서 그것을 하시고……
- 부승찬 위원** 예산소위에서 하시지요.
- 임종득 위원** 아니, 안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동의 못 합니다. 할 게 있는데 왜 끝냅니까? 저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 위원장 성일종** 충분히 시간 드렸습니다.
- 임종득 위원** 두 번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충분히 했습니까?
- 한기호 위원** 아까 시간 안 했잖아요, 1분 더 주고. 지금 뭐라고 그러니까 끝냈잖아요, 조금 더 달라고 그러니까.
- 국방부장관 안규백** 한기호 위원님!
- 한기호 위원** 지금 장관님이 국회의원한테 겁박합니까?
- 박선원 위원** 부탁하잖아요. 무슨 겁박 목소리가 저렇습니까?
- 임종득 위원** 진짜 할 게 많아요. 지금 중요한 이슈들이 다 있는데 사전에 협의도 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현안과 또 예산과 관련돼 있는 것 꼭 하셔야 될 겁니까?
- 한기호 위원** 예.
- 임종득 위원** 현안과 관련된 거예요.
- 부승찬 위원** 아니, 간사 간에 7분·5분……
- 임종득 위원** 내가 그 연락 받은 적 없어요.

○**부승찬 위원** 그러면 연락할 필요가 없지.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하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간사님!

○**임종득 위원** 7분·5분·3분·3분 가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부승찬 위원** 그것은 국정감사예요. 지금 국정감사예요? 원래 5분·3분이에요.

○**임종득 위원** 참내,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부승찬 위원** 5분·3분이요, 5분·3분.

○**임종득 위원** 3분을 줬지요.

○**부승찬 위원** 뭔 소리예요? 5분·3분이에요.

간사 하세요!

○**한기호 위원** 여야 간사님, 합의하세요.

○**임종득 위원** 합의하세요.

○**박선원 위원** 안 하는 것으로 합의하세요.

○**한기호 위원** 우리 지금 4명이 앉아 있잖아요.

○**박선원 위원** 가시면 되지요. 누가 앉아 있으래요?

○**임종득 위원** 바쁘시면 가세요, 저는 질문할 테니까.

○**위원장 성일종** 알겠습니다.

부 간사님, 준비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3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도 하시고요.

○**임종득 위원** 3분까지 안 되는데……

슬라이드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장관님, 이것 아시지요? 7월 29일 날 국무회의 시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것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방홍보원장이 여러 가지 국방홍보원장의 직분에 맞지 않는 그런 직권남용을 비롯해서 했기 때문에……

○**임종득 위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방홍보원장이 남용한 게 아니잖아요, 팩트가. 취임사 중에서 파란색으로 강조된 내용을 사실은 국방일보에 실은 거예요. 이것은 국방홍보원장의 책무도 아닙니다. 국방일보 데스크와 취재기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취재기자도 잘못이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취임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취임사를 보면 취임사 내용 중에 핵심 내용들의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 다르게 강조한 내용들을 위주로 기사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러한 국방홍보원에 대해 기관 경고를 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왜 하신 거지요? 어떤 근거로 하신 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직권남용과 편집권 남용으로 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무슨 직권남용이 있습니까, 지금? 기사를 데스크에서 쓴 건데 홍보원장이 무슨 직권남용을 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편집권이 남용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취재기자에 대한 갑질 또 폭언……

○**임종득 위원**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지금 다른 것으로 넘어가시는 거거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다……

○**임종득 위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사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을 한 가지로 한 게 아니고 몇 가지가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함께 해서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방대학의 정한범 교수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정한범 교수는 제가 잘 모릅니다.

○**임종득 위원** 몰라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그러면 국방대학교의 교수 중에 복무규정과 공무원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는 사람을 모르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정한범이라는 사람은 제가 이름을 들어 봤는데 그 사람의 개인 성향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임종득 위원** 정한범 교수가 교수로서 지켜야 될 복무규정과 공무원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국방대학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들 아직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저는 보고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국방대 노 모 교수가 정당 가입 및 선거 활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정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방대학교에서 국방부로 장관 보고가 아마 된 것으로 아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직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것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 여부를, 해당 감사와 관련해서 사실 관계를 관계 규정에 따라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부승찬 위원** 반대합니다.

○**박선원 위원** 3분 할 것 많으니까 주지 마세요.

○**임종득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하지요.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위원장 성일종** 드릴게요.

1분 더 드리세요.

마무리하세요.

○**임종득 위원** 아니요. 나중에 돌고 난 다음에 또 할게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 말씀을 좀……

○위원장 성일종 마무리하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해당 감사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올려 보세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된 거고.

다음 장.

그래서 국방대학교에서 경고를 내렸어요. 그랬더니만 이 사실을 무시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재심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내용이 저거예요. 한번 보세요. ‘교수는 대외활동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보안 검토 의무가 없다. 관행적으로 많은 교수들이 대외활동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 이게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대외활동을 하면 아마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전수조사를 해야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이 의신청서에다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조치를 하고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되셨습니까?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옛날 의리를 생각해서 좀 살살하지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섭섭합니다.

○한기호 위원 우리 야당입니다. 야당으로 바뀌면 원래 그래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세월이 좀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감사원이 감사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방부 본부의 소속 공무원은 정원이 707명, 군인 정원은 427명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다시 좀, 군인……

○한기호 위원 공무원 정원은 707, 군인 정원은 427.

그래서 국방부의 이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정원 외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영상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16년간 매년 35명의 군인을 한시편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도 4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53명.

그런데 이 인원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야전에서 오는 거예요.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야전은 지금 병력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내가 편하자고 밑의 사람들을 돌 뽑아다가 위에다 갖다 고여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걸 지적을 수차례 계속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마다 얘기해도 안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아마 그 인원이 아니면 그 직의 그 임무를

수행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한기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특화돼서 인원이 발탁된 거 같은데요.

○한기호 위원 그러면 정원을 늘려야지요. 예하부대에서 뽑아 왔다니까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정책실은 2007년부터 현역 군인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해서 차장직을 만듭니다. 만들었지만 이건 정원에 반영 안 됐어요. 뽑아 왔지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뽑아다가 전부 다 배치시켜 놓은 게 정책기획관실의 정책기획차장 또 국제정책관실의 국제정책차장, 방위정책관실의 방위정책차장, 3명이나 준장급을 뽑아다 쓰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런데 평소에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우리 군이 국방부나 합참에 좀 많이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론 아닙니까?

○한기호 위원 아니, 쓰라 이거예요. 쓰는데 정원을 늘려서 써야지 야전부대에 있는 인원을 뽑아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비잖아요, 그만큼. 안 그렇습니까?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이에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한시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시정이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지금. 50명 정도를 갖다 쓰고 있는데 그걸 무슨 수로 정리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시간을 두고 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좀 듣고……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금 구속돼 있는 먼저 장관한테도 얘기했지만 드론사령부 만들고 전략사령부 만들고 그 인원은 어디서 나왔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한된 인원 가지고……

○한기호 위원 그것도 야전에서 전부 뽑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군대학과 같은 경우는 대학교의 학생들이 100% 군인인데 거기 학교장을 뭐로 보냈어요, 군무원을 보냈지요? 그래서 김용현이가 잘못했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뽑아다가 다른데다 다 쓰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이렇게 쓰니까 결국 야전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투력을 어떻게 유지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학교 같은 교육기관은 군무원이 가는 게 맞고.

○한기호 위원 아니지요. 100% 군인이……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인원들을 야전에 보내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 아니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아니, 학교장을……

○국방부장관 안규백 왜냐하면 군……

○한기호 위원 학교장을, 육군대학과 총장을 민간인을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위원장 성일종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

○한기호 위원 그건 아니에요. 육군대학 총장을 민간인으로 쓰는 게 어딨어요.

○박선원 위원 아니, 간담회 따로 하세요, 장관님하고.

○한기호 위원 어떻게 하라고?

○박선원 위원 간담회 따로 하시라고, 찾아뵙고.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끼지 마세요.

○박선원 위원 내가 바빠서 그래요, 지금.

○위원장 성일종 아니, 계속 끊어지잖아.

○한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정원 운영하는데 가장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국방부입니다. 국방부가 문제를 다 만들어요, 지금. 국방부에만 한 50명을 지금 뽑아다 쓰고 있고 그다음에 직할부대 드론사령부 1명도 정원 증원 없이 다 뽑아다 쓰고 있고, 전략사령부 전부 다 뽑아다 쓰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저는 민간인 출신의 장관을 하고 있지만 군 출신의 국방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군에 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지……

○한기호 위원 애정을 가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모든 군인이 국방부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한기호 위원 아니, 제가 애정을 가졌기 때문에…… 저기 차장님들이 알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애정이 많이 식었는데 그래요.

○한기호 위원 왜냐하면 야전부대에 장교가 없어요, 다 뽑아다가 놨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안규백 하여튼 이 부분은 일거에 할 수 없지만 시간을 두고 시차적으로 두고 원복해서 편제가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국정감사 할 때까지 계속해서 제가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승찬 위원 드론사, 전략사 폐지하세요.

○한기호 위원 폐지하라 이거예요. 저도 동의해요.

○부승찬 위원 그러니까.

○한기호 위원 안 되면 폐지하라 이거예요.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한기호 위원님이 군을 잘 알고 또 현장의 경험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서 보완하고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겠다 하시잖아요.

○한기호 위원 이건 지난번에 김용현 장관 있을 때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박선원 위원 무슨 간담회장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질문 좀 합시다, 나도.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이게 작년 비포·애프터가 다른 것 같아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거는 다 똑같아요.

○박선원 위원 연속으로 질문시키고 뭐 하시는 거예요. 나도 질문 좀 합시다. 나도 진짜 중요한 약속 있고 그래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 줄 테니까 기다려요.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무슨 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간담회장이에요, 뭐예요, 연속으로 하고.

○한기호 위원 아까 우리 둘만 손들었잖아요.

○박선원 위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간사님한테.

○임종득 위원 계속합시다, 그러면.

- 박선원 위원** 시간 주세요.
- 강대식 위원** 계속합시다.
- 한기호 위원** 여당인데 드려야지.
- 박선원 위원** 할 거예요, 딱 하나만. 양심을 결고 서로 이야기하지요, 딱 하나만. 3분 주세요.
- 왜요?
- 임종득 위원** 그래요. 계속합시다.
- 위원장 성일종** 드린다니까.
- 박선원 위원** 주라고요, 지금.
- 위원장 성일종** 그런데 박선원 위원님, 회의에 좀 협조를 해 주면서 하십사……
- 한기호 위원** 빨리 드려요, 박선원 위원님.
- 박선원 위원** 협조하잖아요.
- 아니, 여기서는 무슨 간담회처럼 지금 몇십 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성일종** 왜 이게 간담회예요? 왜 이게 간담회예요!
- 박선원 위원** 정말 위원장님 해도 너무하시네. 임 위원님 하시고 한기호 위원님 하시고 1분씩 더 드리고, 무슨 간담회장처럼.
- 한기호 위원** 무슨 간담회를 해요. 지금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인데!
- 박선원 위원**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내 경험 찾고 뭐 찾고, 지금 질의하신 게 아니잖아요.
- 빨리 질문 기회 주세요.
- 강대식 위원** 빨리 줘.
-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기호 위원** 아니, 경험한 게 무슨 죄입니까? 경험을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지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 박선원 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다 동의하고요. 다 좋은 말씀이시잖아요.
- 강대식 위원** 스톱. 스톱.
- 위원장 성일종** 빨리 해요.
- 임종득 위원** 계속하자고.
- 박선원 위원** 눌러 주세요.
- 위원장 성일종** 들어갔잖아요.
- 박선원 위원** 알고 있어요.
- 강대식 위원** 시간 넣었다.
- 박선원 위원** 임 위원님 그리고 한기호 위원님.
- 임종득 위원** 말씀하세요.
- 박선원 위원** 우리 냉정하게 한번 비교해 봅시다.
- 위원장 성일종** 아니, 질의하세요.
- 임종득 위원** 질문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 박선원 위원**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임종득 위원 질문을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박선원 위원 그거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임종득 위원 아니, 국회의원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박선원 위원 김용현 장관이 취임했을 때, 작년의 취임사하고 사진 한번 보세요. 몇 면으로 도배하고 깔았는지, 제1면 사진 크기가 어떤 건지. 내가 한번 비교해 봤어요, 우리 안규백 장관님 사진 나오는 거하고. 절반 사이즈도 안 되고 내용도 절반도 안 돼요.

○한기호 위원 우리가 한 거예요?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한기호 위원 아니, 임 위원하고 한기호가 한 게 아니잖아요.

○박선원 위원 장관 처음 했을 때 취임사 하고 그날이 제일 영광된 자리인데 국방일보에서 사진 크기도 절반도 안 되고 취재보도 면도 절반도 안 되고 내가 봐도 다 화나는데……

여기 뒤에 계신 기자들, 안 그래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민간 장관이 오셨는데 민간 장관을 이렇게 홀대하는 건 뭐예요? 사진도 절반도 안 되고, 장관님이 강조하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기 위해서 내란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은 다 빼 버리고, 앞으로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군이 나아갈 바에 대해서 밝히시고 그러면서도 군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만들고 군이 제대로 대접받고 우리 국방력 키우고 나라 제대로 지키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우기 전에 먼저 이기고 시작한다는 그런 전략 개념 들고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보도를 60년 만에 민간 장관이 처음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거 말도 못 합니까?

그런데 임 위원님이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님이 나중에 장관 될 때도 최고로, 국방일보에서 최고로 할 거 아니에요.

○임종득 위원 그게 홍보원장이 직권을 남용한 거예요?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그게 말이 돼요? 한번 봐 보세요.

○한기호 위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위원들하고 간담회 하는 거예요.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를 장관한테 질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한기호 위원 장관한테 질의하세요.

○박선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임종득 위원 발언해야 되겠어요.

○박선원 위원 뭘 발언해, 또.

○임종득 위원 아니, 제가 발언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성일종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좀……

○임종득 위원 아니, 국회의원이 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과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박선원 위원 무슨 사과를 받아.

○임종득 위원 사과를 받아야지.

○위원장 성일종 위원장으로서……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작년 9월 5일 사진하고 우리 장관님 사진하고 비교해 보세요.

○**한기호 위원** 아니,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임 위원하고 나하고.

○**위원장 성일종** 아니, 편집권은 알아서 하는 거지.

○**박선원 위원** 그게 제대로 된 분배예요?

○**위원장 성일종** 그리고 박선원 위원님 회의의,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야당 위원이 문제 제기했다고 또 그걸 그대로……

위원 평가를 위원이 어떻게 합니까?

○**박선원 위원** 같은 국방부장관인데 사진이 절반도 안 되고 했는데……

○**임종득 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국회의원이 합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지요.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박 위원 한 거에 대해서.

○**위원장 성일종** 서로 협조를 해 주시고.

○**박선원 위원** 합리적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위원장 성일종** 그만하세요.

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황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정청래 위원님, 본 위원, 부승찬 간사님, 강대식 간사님, 임종득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황명선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박선원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이 됐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님, 홍소영 청장님 또 석종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일 14시에 개회하여 결산 의결 및 법안 상정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강대식 강선영 김병기 김병주 박선원 박희승 백선희 부승찬 성일종 유용원
임종득 정청래 한기호 황명선 황희

○첨가 위원(1인)

김민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서덕교

○정부총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관 안규백

기획조정실장 이영빈

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윤봉희

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자원관리실장 조현기

기획관리관 김경욱

지능정보화정책관 염주성

법무관리관 홍창식

감사관 성기욱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국방혁신기획관 최장식

국제정책관 이광석

방위정책관직무대리 최용삼

인사기획관 이인구

예비전력정책관 김신숙

보건복지관직무대리 김진성

군수관리관직무대리 양성태

군사시설기획관직무대리 김신애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길성

전력정책국장 원종대

국방정보본부

정보부장 박진영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단장직무대리 박진칠

합동참모본부

차장 정진팔

육군본부

참모차장 고현석

해군본부

참모차장 최성혁

공군본부

참모차장 박기완

해병대사령부

전력기획실장 박승일

병무청

청장 홍소영

기획조정관 문경식

병역자원국장 김인환

입영동원국장 최정효

사회복무국장 임재하

방위사업청

청장 석종건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방극철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정규현

기획조정관 홍미루

재정담당관 이민휴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직무대리 이정석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신상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손재홍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추미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2025. 8. 6.
윤상현	유용원	국민의힘	2025. 8. 7.

○의안 회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5.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7)

7월 16일 회부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2)

7월 22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2.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8)

7월 23일 회부됨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8)

7월 24일 회부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2)

사회와 법

7월 25일 회부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0)

이상 2건 7월 28일 회부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1)

7월 30일 회부됨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1881)

8월 1일 회부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6)

이상 3건 8월 7일 회부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2)

8월 18일 회부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4)

8월 19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8)

8월 20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3)

8월 2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국가사이버안보법안

(2025. 7. 11.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0)

7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2025. 7. 23.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7)

7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1)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4)

이상 3건 7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7. 31.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5)

8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청원 회부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에 관한 청원

(2025. 7. 27. 박정윤 외 53,0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7)

7월 28일 회부됨

○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국방부령	제118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5. 7. 29.
대통령령	제35667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5. 7. 31.

○ 보고서 제출

2025년도 2분기 이·전용 내역 제출

(2025. 7. 15. 병무청장 제출)

판결 확정 보고 송부

(2025. 7. 15.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제출)

2025년도 2분기 세출예산 이·전용 명세서 제출

(2025. 7. 17. 방위사업청장 제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부대개편사업에 대한 2/4분기 집행실적 및 향후계획

(2025. 7. 17. 국방부장관 제출)

법률 공포 통지

(2025. 7. 22. 정부 제출)

25-2차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 및 정책반영 결과 제출

(2025. 7. 28. 방위사업청장 제출)

헌법소원심판회부 통지문 송부

(2025. 7. 29. 헌법재판소장 제출)

2025년도 2분기 세출예산 이·전용 내역 제출

(2025. 8. 4. 국방부장관 제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실적 보고

(2025. 8. 21. 국방부장관 제출)